

위기에 직면한

문화



문화창의 분야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정책 지침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 Victoria Villasana et Riccardo La Valle*

유네스코는
이 실용 지침서의 집필에
탁월한 전문성으로 지대한 기여를
해 주신 샤를 발르렁에게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초안 원고의 심층 검토와
귀한 조언을 해 주신 아브릴
조프르, 퀘벡 문화 기업 발전회
(SODEC)(루이-프레데릭 고데와
아니 프로방세), 그리고 문화 정책
및 동향 개요(자니나 피갓과 사빈
즈와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책자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희망

문화창의 분야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정책 지침서

위기에 직면한 유기체에 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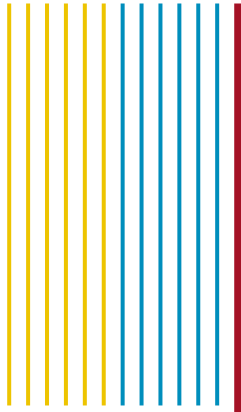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서문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pandemic)은 문화창의 산업을 황폐하게 할 만큼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봉쇄와 물리적 거리 두기 조치는 세계 도처에서 예술인과 문화 전문가들의 소득과 생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었다. 문화예술 작업의 취약성 때문에, 이들은 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한층 더 노출되었는데, 이 충격으로 창의 분야에 이미 존재하던 불안정성과 불평등성은 더욱 악화되었다. 직업을 잃은 예술인과 문화 전문가들의 수는 기록을 갱신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는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열린 형태의 온라인 토론 시리즈인 리질리아트(ResiliArt) 운동¹을 시작한 2020년 4월 15일 이래로, 1천 명이 넘는 전 세계의 예술인과 문화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문화 및 창의 분야가 더욱 강하고 더욱 결속된 모습으로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를 논의하기 위해 그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권고를 제시하였다. 유네스코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유네스코는 이 지침서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이 사회 경제적 재건 계획 속에 문화창의 산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실용적인 길잡이를 제공한다. 보건 및 안전 조치를 준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적응하기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 모두가 필수적이었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이루어진 지원은 다양한 형태를 띠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이 지침서는 문화 분야 종사자, 기관, 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채택한 일련의 긴급 조치들과 해당 분야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도구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고자 한다.

모든 국가들이 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는 동안, 유네스코는 문화창의 산업이 뒤쳐지지 않도록 지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창의 산업이야말로) 경제적 동인(動因)이자, 대규모의 고용, 특히 여성과 청년 고용의 원천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콘텐츠의 다양성을 통해 의미와 정체성의 전달자가 되기 때문인데, 이는 이미 이 위기를 헤쳐 나가면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증명된 바 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 상황은 예술인과 문화 전문가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근로 환경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도 드러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예술인의 지위는 유지되고, 강화되고 제고(提高)되어야 한다.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문(1980)은 오랫동안 예술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보호와 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요청해 왔다. 이 지침서에 소개된 정책들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장기적인 제도 변화의 촉매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1. 리질리아트(ResiliArt)는 회복력·탄력성을 의미하는 'Resilience'와 예술 'Art'을 합친 조어로 예술인 및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 유네스코가 제안한 운동이다 (역자 주).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15주년을 맞아,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문화 분야를 구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채택할 때, 결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환기한다. 그럼에도 문화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소비의 급증은 봉쇄 조치로 인해 가속화되고만 있고, 콘텐츠와 창작자 모두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전례 없는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21년은 유엔이 지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창의 경제의 해인 만큼, 해당 분야의 핵심 주자인 예술인뿐 아니라 문화 전문가 및 기업가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바란다. 이들의 근로 및 고용 조건에 관심을 집중해야만 창의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고, 점점 더 다양해지는 창의성의 표현과 향유 방식을 경제적 번영과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힘든 시기에 예술인과 문화 전문가들은 우리 사이의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어 주었다. 그들의 창의성이 우리를 한데 모아 준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모여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높일 차례이다.

에르네스토 오토네 R.
유네스코 문화 사무총장보

실용 지침서

I.

예술인과 문화
전문가에 대한
직접 지원



© Yogendra Singh / Unsplash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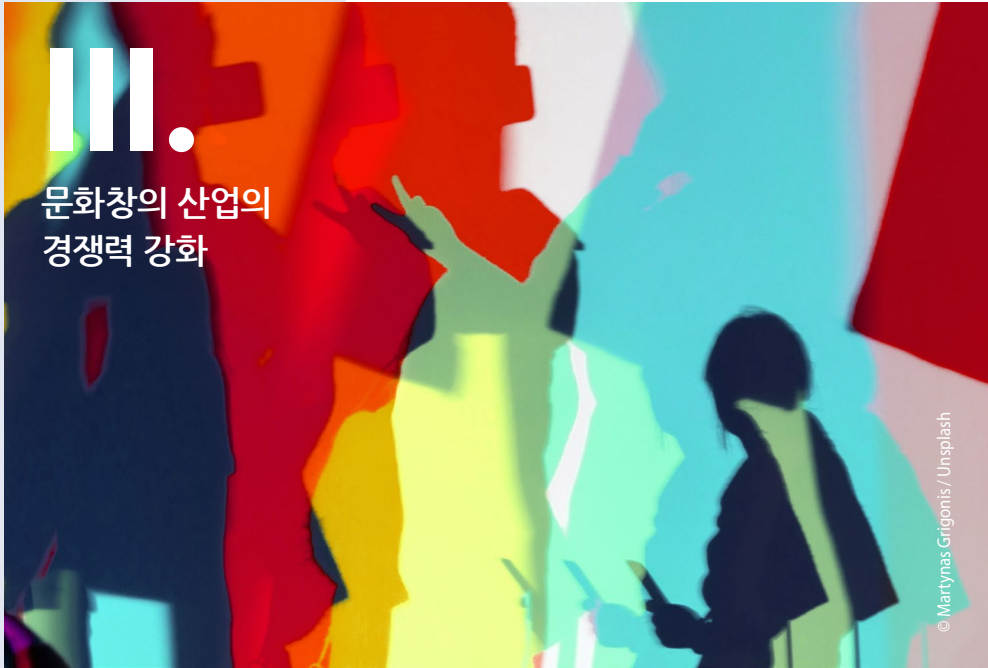
문화창의 산업
분야에 대한 원조




© Alessia Chinazzo / Unsplash

III.

문화창의 산업의
경쟁력 강화




© Martynas Grigonis / Unsplash



예술인과 문화
전문가에 대한
직접 지원

- 1 사회복지수당
- 2 작품 주문과 구입
- 3 소득 손실의 보상
- 4 역량 개발



문화창의 산업
분야에 대한 원조

- 5 지원금과 수당의 조기 지급
- 6 의무 규정의 일시적 완화
- 7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보상
- 8 세금 및 사회 부담금 완화
- 9 수요 부양
- 10 대출 우대
- 11 기반 시설 및 설비 강화



문화창의 산업의
경쟁력 강화

- 12 참여 기반 수요 평가와 타당성 연구
- 13 비즈니스 모델의 조정
- 14 자국 콘텐츠 진흥
- 15 외국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

왜 실용 지침서인가

유네스코는 회원국 및 문화계와 함께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는 지식 공유를 위하여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이해관계자를 모으고 지식을 결집시킴으로써 가능했다.

- 2020년 4월 15일에서 10월 21일 사이에 65여 개국에서 170개 이상의 리질리아트 토론 개최.
- 2020년 4월 17일 주요 정부간 기구 (IGO) 및 지역 발전 은행과 온라인 대화 개최.
- 2020년 4월 22일 세계 130여 개국의 문화부 장·차관과의 온라인 대화 개최.
- 급속하게 변하는 상황에 대한 개관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 & 코로나19 : 영향과 대책 추적자> 주간지 발간.

위기는 문화예술계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약점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더욱 악화시켰다. 이는 문화창의 산업의 중심에 위치한 이들, 즉 다수의 고용주와 일하는 경우가 흔한 프리랜서 예술인과 문화계 종사자들의 사회 및 경제적 보호에 있어서의 결함을 드러내고, 기존 제도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했다. 공방, 화랑, 프로젝트 공고, 레지던시, 강좌, 아트페어, 라이브 공연 등 예술 활동 전반이 봉쇄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그들의 활동 재개가 늦어질수록, 이러한 활동들이 입는 충격은 더욱 장기화될 것이다.

이 위기는 또한 디지털로의 변화를 가속화하며, 문화 기업, 대중 매체,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의 경제적 생존력과, 예술인과 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그들이 국가의 지원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경제를 장악하기 시작한 온라인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했다. 규정의 부재는, 특히 공공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 관련하여, 더욱 더 긴급한 공공 정책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문화 통계는 지난 50년간 문화 정책을 뒷받침해 왔지만, 만약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화 참여에 대한 데이터 접근이 없어질 것이고, 문화 통계도 그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창작, 제작, 유통뿐 아니라 접근성과 수익 창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화예술계는 각국 정부들이 주요 문화 정책과 공공 투자를 통해 적게는 수년부터 수십 년의 인내와 방법적 지원을 바쳐 만들어낸 취약한 생태계이다. 지금 이 노력들은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예술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창작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작품을 거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공연장, 영화관 그리고 지역 미디어 등) 가치 사슬의 주요 부분 전체가 아예 주저앉게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사람들의 문화 향유권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양측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시장의 세계화와 디지털 전환에 직면하여, 문화창의 산업은 새로운 역량, 실행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적응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되었다.

계획은 국경을 뛰어 넘고 연대 의식과 상호 지원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다리오 프란체스키니
문화 활동 및 관광부 장관, 이탈리아

그러나, 위기는 또한 실험의 기회가 되는데, 그중 몇몇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이 새로운 문화 참여 방식에 대한 대중의 반응과 이들이 촉발한 재정적 흐름은 이러한 새로운 실천 사례들이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분명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대중을 만나게 된 문화 운영자들은 그들을 단골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변혁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다양성 속에 있는 모든 행동 주체들이다.

우리는 전무후무한 시대를 살고 있다. 국가들이 이처럼 거대하고 심각한 도전을 맞닥뜨렸던 적은 거의 없다. 역경에 직면할 때는 일반적으로, 최강자가 승리하고 최약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각자도생'식 접근, 혹은 적용 가능한 공통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독창성을 발휘하는 연대적 접근이라는, 180도로 다른 두 가지의 선택지가 생겨난다. 명백하게, 유네스코는 두 번째 접근을 통해 창의 산업이 직면한, 전에 없었던 도전에 맞서는 회원국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 실용 지침서를 통해 유네스코는 회원국들의 독창성과, 그들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만든 노력들을 증언하고자 한다. 위기의 시대에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있어 의미와 정체성의 매개체로서의 문화는 더욱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여, 정부, 시민 사회 그리고 민간 영역들은 예술가, 창작자, 문화 기구와 기관들을 돕고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들을 채택하였다.

이 실용 지침서는 세계 곳곳의 정부와 시민 사회들에 의해 채택된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선별된 모범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이의 목록을 제공한다. 많은 정부들이 기존의 문화 정책들과 제도들을 예술과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배치함으로써 재건을 준비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들 또한 실행하였는데, 이들 역시 이 지침서에서 볼 수 있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창의성의 보호와 증진에 깊이 헌신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해결책을 찾는 자들을 위한 실천적인 행동 지침을 담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를 통해 교훈이 되는 모범 사례들을 증언하고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뒤돌아보고 다시 만들었어야 했다.
테크놀로지는 이제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감동시키고, 연결고리를 만들고, 비교하고,
나누고, 토론하는 능력을 준다.
우리는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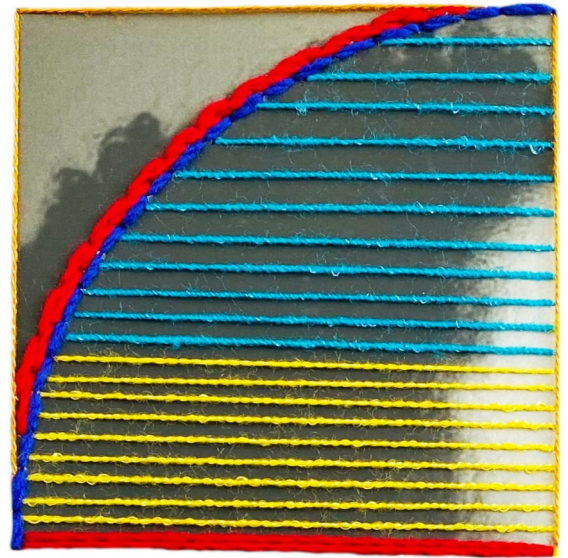
에블린 글레니
타악기 연주 명인
리질리아트, 국제 음악 협의회
(2020년 5월 28일)

누구를 위한 실용 지침서인가

여기에 수록된 풍성한 지식 덕분에, 이 실용 지침서는 문화창의 분야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실행한 정책들에서 영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의 출처로 여겨질 수 있다. 실용 지침서는 전 세계 곳곳의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시민 사회가 이행한 활동의 대표 사례들을 보여준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다른 정책 모음집과는 차별화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창의 산업에 특별히 집중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적 맥락에 적합한 광범위한 영역의 해결책을 강조하면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비교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자, 문화 단체와 기업의 수장, 연구자와 학생들은 서로 다른 정책과 결부된 위험성과 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간결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론



이 실용 지침서는 예술인과 문화 전문가들을 지원하고 모두에게 문화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의 노력을 모으려는 취지로 유네스코가 착수한 모범 사례 공유 계획의 결과물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초기에 이루어진 1차 정책 조사에 기반하여, 2020년 4월 22일 유네스코는 130명이 넘는 세계 각국의 문화부 장·차관들과의 대화를 마련했다. 이 1차 조사 작업에 이어 유네스코는 홈페이지에 모범 사례들을 요약하기 위하여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권 언론의 기사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였는데, 이는 해당 국가의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다른 회원국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책 사례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검색이 용이하도록 주요 카테고리로 분류되었다. 국가 혹은 기관 유형에 따른 분야별 검색뿐 아니라, 정책 목표에 따른 검색 또한 가능하다.



- 예술인과 문화 전문가의 소득 보장
- 운영 손실 보상 및 신규 작품 지원
- 회복탄력성의 형태로서의 창의성

이후 몇 달 동안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정부, 시민 단체와 민간 재단들은 문제의 정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는 이 분야가 위기를 헤쳐 나가는 것을 돕고, 또한 코로나19 이전과 매우 달라진 상황에서 불확실한 회복에 직면했을 때 보다 회복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실용 지침서를 엮는 준비 과정은 특히 저개발국이나 보다 한정적인 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표현의 보호와 진흥에 있어 매우 적극적인 국가들에서 취해진 정책들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제를 더욱 깊이 연구할 기회가 되었다.

실용 지침서의 내용은 그 어떤 선입견도 없는 실제적인 관찰에 기반하고 있다. 정책들의 선정과 분류 작업은 가능한 한 최대한 광범위한 목록이 만들어진 후에 이루어졌다. 해당 지면에 소개되는 모범 사례들이 실제 다양하게 취해진 모든 노력들을 충분히 올바르게 다루지 못할 수도 있다. 이들은 위기 상황이 진행되면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수많은 정책 중에서 채택된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가야 한다. 위기의 시대에는 불완전한 정보, 혹은 맥락에서 벗어나거나 아예 잘못된 정보들이 전달될 위험이 더 크다. 이 실용 지침서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기 위해 신속하게 제작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었기에, 실용적 측면과 내용적 권위를 함께 추구하는 출판물에 필요한 통찰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다.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과 동시에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최선을 다했다.

1. "코로나19에 대한 응답," 유네스코. 문화 표현 다양성, 2020년 10월 5일 접속, <https://en.unesco.org/creativity/covid-19>.

실용 지침서를 사용하는 법

2020년 3월 중순 이래로, 전 세계 각지의 정부들은 예술인과 문화 분야 종사자들, 문화 기업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실행해 왔다. 이 실용 지침서는 위기 대응책 중에, 문화창의 산업이 스스로 ‘새로운 표준(new normal)’²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목전의 필요에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변화를 재촉하는 데 효과적이고 유익했던 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이 지침서는 실용적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간결하게 쓰여졌다. 형식 면에서는 신속하고, 독자적이고, 선택적 참고가 가능하도록 개별 주제에 대한 보고서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각 자료표는 독자적이기를 의도했으며 독자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부분만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았다. 정책들은 다음 3개의 주요 목표에 따라 분류했다 : ▲ 예술인·문화 전문가에 대한 직접 지원, ▲ 비영리단체, 민간 및 공공 기관 등의 문화 단체에 대한 지원, 혹은 ▲ 문화 및 창의 분야의 전반적 경쟁력 강화. 모든 분류화 작업이 그러하듯, 이 역시 정책의 복잡성을 구조적으로 포착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서가 선택한 분류 방식은 독자의 관심에 따라서 대응책을 분류하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그 일부는 창작자 개인과 단체에 함께 적용될 수도 있다.

- I. 예술인과 문화 전문가에 대한 직접 지원**
소득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고, 사회 보장 혜택을 제공하여 예술인과 문화 전문가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도한 정책들
- II. 문화창의 산업 분야에 대한 원조**
심각한 유동성 부족과 현금 흐름 문제에 부딪힌 단체들의 생존 보장을 위한 정책
- III. 문화창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문화창의 산업이 국내외 시장의 새로운 조건에 대비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정책

각각의 주제별 자료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 정책의 설명
- 정책의 목표와 그것이 대처하고자 하는 요구에 대한 설명
- 정책 실행을 위해 계획해야 할 활동 목록
- 유의 사항 목록

전 세계 국가와 지역들에서 실행된 다양한 계획에 대한 개괄을 제공하고, 국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받을 만한 사례들이 각 주제별로 최소 두 개씩 자료표에 제시되었다.

2. “세계적 유행병의 단어들 : ‘새로운 표준’, Courier international, 2020년 5월 15일,
www.courrierinternational.com/revue-de-presse/bureau-des-trads-les-mots-de-la-pandemie-nouvelle-normalite.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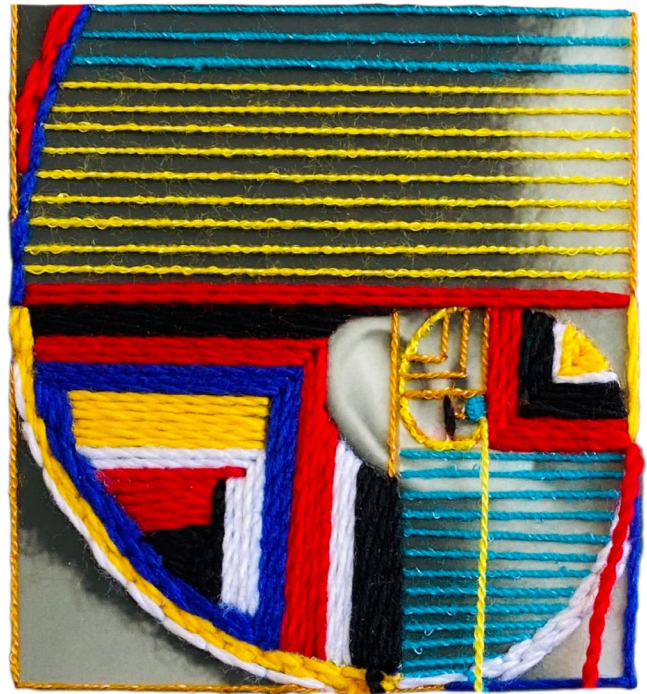
현재의 위기 상황은 문화창의 산업 분야를 계속해서 황폐하게 하고 있다. 2020년 3월, 세계 영화 산업은 이미 70억 달러의 수입 손실을 냈고³, 향후 5년간의 손실은 미화 16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음악 산업에서는, 6개월의 휴업이 후원 수입⁴에 있어서 미화 100억불 이상의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코로나19의 결과로 2020년 세계 도서 출판 시장은 전년 대비 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⁵.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위기와 그에 따른 봉쇄 조치는 문화창의 산업의 고용에 이미 매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많은 예술 기관과 단체들이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때문에 문을 닫거나 직원 감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아트 바젤이 실시한 설문⁶에 응답한 화랑들의 3분의 1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원을 반으로 줄였다.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영화 산업은 2020년 내에 천만여 개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⁷.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전에도 우리는 디지털로의 이행이 빠를 것이라 전망했으나, 실제로 이는 그동안의 가장 전향적인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속화되었다. 5G,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의 전개는 앞으로 5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의 그 어떤 기술이 이룬 것보다도 더 큰 변화와 지각 변동을 촉발시킬 것이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⁸, 코로나19는 5년간의 진보를 3개월이라는 시간으로 단축시켰다.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봉쇄는 우리의 사회적 교류와 문화 소비를 거의 전적으로 디지털 공간으로 끌고 들어왔다. 문화 및 창의 분야는 따라서 창조적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록 특정한 환경과 조건하에서 일지라도, 지식 재산권 제도에 대한 예외와 그 한계의 시험장이 되어 버렸다.

창의 콘텐츠의 재생과 접근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강제된 봉쇄 조치의 악조건을 극복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세계 인구의 대략 46퍼센트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접속은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가 되었다.



3. 에이미 왓슨,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영화 산업 소득 손실”, Statista, 2020년 6월 18일, www.statista.com/statistics/1104224/filmindustry-revenue-loss-coronavirus-worldwide/.

4. 스테판 홀, “이것이 코로나19가 어떻게 음악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이다”, 세계 경제 포럼, 2020년 5월 27일, www.weforum.org/agenda/2020/05/this-show-covid-19-is-affecting-the-music-industry/.

5. “세계 도서 출판사 시장 2020-2030: 코로나19의 영향과 회복”, Business Wire, 2020년 5월 25일, www.businesswire.com/news/home/20200525005203/en/Global-Book-Publishers-Market-2020-2030-COVID-19-Impact-and-Recovery---ResearchAndMarkets.com.

6. 클라르 맥앤드류, “갤러리 분야에서의 코로나19의 영향. 2020년 중기 조사”, 아트 바젤, 2020년 10월 2일 검색, www.artbasel.com/about/initiatives/the-art-market.

7. “글로벌 스크린 프로덕션 - 코로나19에서의 경제 회복에서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의 영향”, 올스버그 SPI, 2020년 6월 25일, www.o-spi.co.uk/wp-content/uploads/2020/06/Global-Screen-Production-and-COVID-19-Economic-Recovery-Final-2020-06-25.pdf.

8. “코로나19의 회복은 디지털일 것이다 : 첫 90일의 계획”, 맥킨지 디지털, 2020년 5월 14일, 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mckinsey-digital/our-insights/the-covid-19-recovery-will-be-digital-a-plan-for-the-first-90-days#.

각국 정부는 농촌 및 소외 지역의 광대역 인터넷 개발 계획에 박차를 가했는데, 이는 비즈니스와 특히 교육 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전 세계의 많은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방대한 양의 창의 콘텐츠에 대한 무료 접속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⁹가 지적한 것처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적용된 이러한 유연성은 (문화에 대한) 접근성 부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며 이 목적에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위기 상황에 맞서기 위해 적용된 조치들은 크게 두 종류로,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기 위한 목적이거나(임금 지원, 손실 보상, 사회 보험 기여금, 휴가 및 지원금의 조기 집행 등), 기존에도 있던 지원 사업이나 현재 상황에 맞춰 그 기준이 변경된 지원 사업(역량 개발 지원, 기반 시설 투자, 시장 개발 등)이 그것이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개입 방식은 문화예술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 지역, 지방 정부가 예술가와 기관이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 맡고 있는 역할이 근본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실행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런 역할은 특히 봉쇄 조치 하에서 더욱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9. 프란시스 거리, “지식재산권, 혁신, 접근성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몇 가지 고려사항들”, WIPO, 2020년 4월 24일, www.wipo.int/about-wipo/en/dg_gurry/news/2020/news_0025.html.

이러한 세계적 개괄은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지원 대상자의 특수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보여준 독창성을 조명한다. 특히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최빈 가구를 위한 식사 배달이나 사회적 보조와 같이 1차적 생계 필요에 부합하기 위한 정책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정책들은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에 종사하는 예술인과 창작자 다수에게 유익한 것이다. 특정 저작권 신탁단체들은 작가, 작곡가, 실연자에게 저작권료를 선지급하면서 신속하게 결집하였는데, 이는 종종 이들이 프리랜서 혹은 중소기업에 특정된 지원금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정부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위기를
우리가 담당하는 분야의 기회로
전환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공공 문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기관을 강화하는 것,
시민과 문화 분야에 문화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다.**

루벤 다리오 캅데빌라
파라과이 문화부 장관

선진국이든 개발 도상국이든 간에 모든 국가들은 봉쇄 조치가 문화창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이 당면한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에서 동일한 목표를 추구했다. 각자는 그들의 환경과 역량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냈다. 대체로 각국 정부는 특별히 피해가 심각한 3가지 주요 분야에 보다 구체적으로 개입하였다.

- 민주주의의 본질적 책임이자 기둥으로 간주되는 민영, 지역, 공동체 공공 서비스 미디어. 이 기업들은 이미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이전부터 시청자와 광고 수입이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큰 시련을 겪었다. 코로나19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긴급하게 만들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일들을 중단하게 된 라이브 공연계(예술인, 제작자 그리고 배급사). 콘서트, 극작, 무용, 서커스, 축제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기타의 공연 장르가 해당된다.
- 역시 불시에 중지되어 버린 영화 산업(제작사, 배급사, 영화관 운영자)과 텔레비전 프로덕션. 이들의 활동은 민간 영역의 지불용의액을 초과하는 고비용의 보건 조치와 보험 보장이 있어야만 재개될 수 있는 것이다.

직접 재정 지원 외에 가장 널리 취해진 조치들의 순위를 매긴다면, 승자는 반론의 여지없이 예술 콘텐츠 스트리밍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플랫폼의 개시가 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 당국은 이 플랫폼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주요 온라인 다국적 기업들이 불투명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지배력을 증가시키는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해 온 정책을 실행에 옮긴 셈이 되었다. 즉, 해당 국가의 자국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의 포털을 세운 것이다. 이러한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다. 이는 어떤 의미로는 국립 극장이나 공휴일에 방영된 주요 축제의 녹화 방송과 같이 공공기관이 맡아 온 활동이 디지털 세계로 전환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다.



© United Nations COVID-19 Response / Unsplash

정채





예술인과 문화 전문가에 대한 직접 지원

예술인과 창작자들은 급여와 저작권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보수를 받는다. 대다수에게 저작권 수입은 종종 보잘것없거나 아예 없다시피 한 것이다. 디지털로의 전환은 이러한 경향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화했다. 주요 디지털 플랫폼이 작품 사용에 지불하는 금액은 물리적 매체의 판매로 창출되는 금액보다 훨씬 적다. 결과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급여는 소득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는 것은 모든 급여도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인 및 창작자들이 가지는 직업적 지위의 다양한 성격(피고용인,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 등)과 그들 활동의 대체적으로 비공식적인 특성으로 인해, 문화 분야의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 1 사회복지수당
- 2 작품 주문과 구입
- 3 소득 손실의 보상
- 4 역량 개발

사회복지수당

정책 설명

예술인들은 거의 대부분 자영업 형태의 노동자로, 그 지위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비정기적이며, 장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 그 결과 이들은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데, 이는 사회 보장 제도, 연금이나 생활 보조금, 그리고 기타 사회 수당에 대한 이들의 접근을 제한한다. 작품의 불법 복제와 저작권료 징수액의 감소는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창작자들은 고령과 질병의 위험으로 악화되는 극도로 불안정한 조건에서 살고 있다. 문화적 활동의 상당한 부분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노동자들은 부적절하게 등록되거나 아예 등록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서, 유럽 25개국의 33개 저작권 신탁 단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시청각작가협회(SAA)는 유럽 연합에서 작가와 예술가에게 고용의 권리, 사회 보장과 연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제도적 지위가 부재하다는 것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실업 보험 혹은 최후 수단 보조금 같은 사회 보장 정책들은 종종 대체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들과 유사하다. 둘 다 같은 목표를 추구하지만, 사회적 정책들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인 정책들과는 구별된다.

왜 이 정책을 선택하는가?

- 사회 발전과 복지에 대한 예술인과 창작자들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서이다.
- 예술인과 문화 종사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그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소득 보호와 사회 보장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 예술인들이 고용과 생계, 근로 조건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노동 인구 중 유사 직군에 부여된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 너무나 많은 예술인과 문화 전문가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 문화 분야의 전문 경력 기회의 불평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봉쇄 상황에서 그들의 기여가 더욱 필수적이라고 입증된 예술인들에 대한 연대 의식을 표명하기 위해서이다.

정책 실행을 위해 고려할 행동

- 협회, 지역 그리고 시 정부와 같은 중간 매개 단체와 협력하여 지원 자격이 되는 예술인과 문화 종사자들을 파악하고, 이들이 현장의 요구와 가장 가깝다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복지수당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고려한다.
- 사회복지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예술인과 문화 종사자들의 실태 파악을 위해, 다른 부가적 혜택을 홍보한다. 즉, 단체 권리보호 운동 동참, 작품 주문 수수, 공공 지원 요건 충족, 수요 조사와 문화 통계, 그리고 창작 후원 프로그램 설계 참여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유의 사항

- 창작 활동을 소득의 주요 원천으로 삼고자 하는 아마추어들을 가려 내기 위하여, 명백하고 투명한 지원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자의성과 불투명성을 방지해야 한다.
- 간헐적으로 직업 예술 활동을 하는 창작자의 특별한 환경을 고려한 사회복지수당이 결코 무상 원조가 아니라, 예술가들이 그들이 선택한 직업에 헌신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코트디부아르

2020년 4월 1일, 아이보리안 저작권 사무소(BURIDA)는 사무소 회원¹에 대한 긴급 지원 심의회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질환이 있는 회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기관으로부터의 재정적 원조가 필요한 회원들을 선별하고, 사무국에 그 회원에 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제안하고, 지급된 지원금의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전술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회원들은 그들의 의료 기록 서류를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룩셈부르크

2020년 4월 3일,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임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테러 발생이나 전염병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 프리랜서 전문 예술인과 간헐적 공연 노동자(공연 앵페르미앵)들을 돕는 사회 보조 제도를 도입하였다.² 이 제도는 위 예외적 상황으로 초래된 어려움의 경우에 한해, 선별된 이들에게 최저 임금 수준만큼의 월별 사회 수당을 지급하게 해 준다. 또한 위 특수한 상황으로 공연 앵페르미앵이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예를 들어 전시회 혹은 음악회의 취소, 영화나 공연 제작의 취소 혹은 연기)에는 법에 따라 일일 추가 수당을 보장한다.



대한민국

2020년 1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예술인과 문화 분야 종사자들이 그들의 예술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최소 보험료 납부 기간(지난 24개월 동안 9개월)과 예술인으로서의 최소 고용 기간(지난 24개월 동안 3개월) 충족 등의 관련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실업 급여(120일에서 270일 동안)와 출산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³



짐바브웨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활동과 소득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예술인과 체육인들에 대한 원조를 위해 2000만 짐바브웨 달러(미화 5만 5000불)에 달하는 체육인 및 예술 구호 기금(AARF)을 마련했다.⁴ 예술인들을 위한 이 지원 기금은 짐바브웨 국립 예술 위원회(NACZ)를 통해 지급된다.⁵ 예술인들은 최대 5000 짐바브웨 달러(미화 13.8불)까지의 지원금을, 짐바브웨 국립 예술 위원회 혹은 짐바브웨 국립 갤러리에 등록된 예술가 협회와 사회 기구들은 7500 짐바브웨 달러(미화 20.7불)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 세르쥬 응'게상, "아이보리안 저작권 사무소 : 와병 중인 예술가 지원 심의회", *Fratemite Matin*, 2020년 4월 5일, <http://beta.fratmat.info/article/203419/Culture/bureau-ivoirien-du-droitdauteur--une-commission-daide-aux-artistes-malades-instituee>.

2. "코로나19 : 독립 전문 예술인과 공연 앵페르미앵들을 위한 지원 제도의 실행", 룩셈부르크 대공국 정부, 2020년 4월 6일, https://gouvernement.lu/fr/actualites/toutes_actualites.gouv_mc+fr+actualites+mesactualites+2020+Avril+covid-19_regime_aide_artistes_intermittents.html.

3.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정책 대응 :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회복탄력성 수립",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5월 27일, https://kccuk.org.uk/media/documents/Responses_to_covid-19_ROKfinal.pdf.

4.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장하는 정부", 더 헤럴드, 2020년 4월 8일, www.herald.co.zw/govt-to-extend-grants-to-artists/.

5. "2020년 7월 코로나19 체육인 및 예술 구호 기금(AARF) 신청과 지급 체계", 짐바브웨 내셔널 갤러리, 2020년 10월 2일 접속, www.nationalgallery.co.zw/index.php/inspire/projects/project/170-framework-for-application-and-disbursement-of-thecovid-19-athletes-and-artists-relief-fund-aarf-for-july-2020.

예술인들은 대개
고정적이거나 정규적인 소득을
가지지 않으므로, 코로나19 위기의
경제적 영향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술인 고용 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성희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

작품 주문 및 구입

정책 설명

박물관, 공공 도서관, 국립 극장, 혹은 공영 방송사 등의 공공 기관은 통상적 활동의 일환으로 작품을 주문하고 구입한다. 많은 나라들을 볼 때, 국립, 광역 그리고 지자체 정부와 그 기관들은 작품의 주문과 구입 시장의 주요 주체이다. 이러한 형태의 후원은 예술인과 창작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혜택은 즉각적이므로 위기의 순간에 효과적인 조치가 된다. 많은 나라들이 이미 할당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거나 취약한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한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어떤 지원 기구들은 사업 공모나 기금 수여를 앞당겼다. 자국의 창작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는 봉쇄로 갇혀 있는 시민들이 이 예술 작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생활 참여를 독려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외국 작품에 모든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창작물을 돋보이게 하는 데 기여했다. 여러 정책이 이러한 새로운 창작품들을 위한 웹사이트들을 탄생시켜 세력을 확장해 가는 해외 채널과 콘텐츠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였다. 이 정책은 관중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예술인과 극단들(노래, 음악, 무용, 연극)에게 특히 효과적이었다.

왜 이 정책을 선택하는가?

- 인간의 수요가 매우 낮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 창조성을 자극하고, 예술인들을 창작을 지속하는 상태로 유지하고, 대중과의 관계에 지속성을 주기 위해서, 즉 창작자와 그의 작업을 대중 관심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이다.
- 정부의 구매력과 대출력을 동원하기 위해서이다.
- 사회적 소속감과 사회적 응집력의 강화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 국내 작품의 유산을 풍성히 하고, 새로운 방식의 창작과 유통을 실험하고, 관객을 확대하고 새로운 배급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정책 실행을 위해 고려할 행동

- 정부 부처 외부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선발 과정을 수립한다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서의 자의적인 방식을 피할 것).
- '공정한' 보상을 책정한다.
- 새로운 창작품의 주문이 저작권 취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한다.
- 추후의 회계 감사 요청에 부합할 투명하고 엄격한 주문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유의 사항

- 작품이 무상으로 제작될 때는 선례를 만들거나, 예술인의 작업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거나, 문화가 국가의 전적인 책임이거나 공공 투자만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창작자가 창작 활동을 넘어서 자신 작업의 홍보와 배급까지 홀로 책임지지 않도록 하라.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새로운 배급 채널 혹은 기존의 채널(예- 공공 서비스 미디어)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공공 기관장들이 통상의 경우를 넘어서 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는 보다 배타적이거나 심지어 차별적인 프로그램으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2020년 8월, 정부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 화랑 그리고 미술 상인들을 돕는 취지의 새로운 문화 계획의 일환으로 예술품 구입 예산을 50만 유로(미화 58만 1544불)에서 300만 유로(미화 350만불)로 인상했다.¹ 정부는 아트 페어, 소규모 화랑 또는 작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150여점의 작품들을 구입할 예정이다. 각 작품은 심사위원 5인의 추천을 기반으로 선별될 것인데, 이 심사위원들은 5년간 활동하게 된다.



아르헨티나

대중 도서관 국립 위원회(CONABIP)는 온라인 독서 장비 자료와 장비를 구축하였다. 이는 공공 도서관뿐 아니라 이미 위기 이전부터 생산과 판매 저하에 직면해 온 출판사들의 장기적 생존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원격 도서%2020(Libro%2020 a distancia)' 프로그램은² 아르헨티나의 공공 도서관들이 50퍼센트 할인가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도서 자료와 장비를 들이는 것을 지원하고자 한다. 올해 CONABIP과 문화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지원을 두 배로 늘렸다. 도서 박람회를 위해 할당된 기금은 기존에 4700만 아르헨티나 페소(미화 72만 9168불)로 발표되었던 예산으로 전용되었다.



카보베르데

문화부는 무료 온라인 플랫폼에 작품을 제공한 100명의 예술인들에게 정액 지원금을 지급하는 '무대의 예술인 100명(EnPalco100Artistas)'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계획은 시각 예술, 무용, 음악, 연극, 드라마, 시 그리고 문학 분야의 예술인들을 모집하고 각각 10분에서 15분씩을 할당하여 작품을 선보이도록 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첫 번째 행사의 성공에 이어, 유럽 연합의 재정 지원을 받는 두 번째 행사가 시작되었다.³ 각각의 예술인들은 1만 에스쿠도스(미화 100불)를 받거나, 정부가 지급하는 기타 코로나19 혜택을 받은 경우 이의 60퍼센트를 지원금으로 받았다.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국제 예술 행사인 아트 두바이가 취소됨에 따라, 외교부의 공공 문화 외교 사무소는 150만 에미리트 디르함(미화 40만 8000불) 이상의 예산을 들여 에미리트 예술인들의 작품을 구입했다.⁴ 이 예술품들은 '대사관의 예술인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국의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전에 기획된 것이긴 하나, 외교부는 위기에 처한 예술계를 지원하는 일환으로 시행하였다.

1. "독일이 국가 예술품 수집 예산을 600프로 인상하였다", 아트포럼, 2020년 8월 5일, www.artforum.com/news/Germany-Increases-National-Art-Acquisition-Budget-by-600-83648#.

2. 도서% 프로그램(Programa Libro%), CONABIP, 2020년 10월 2일 검색 참고, www.conabip.gob.ar/sites/default/files/CIRCULAR_EDITORIALES_CONABIP_2020LIBRO_PORCIENTO_DISTANCIA.pdf.

3. 돌시나 멘데스, "유럽 연합이 지원하는 제 2차 'EnPalco100Artistas' 프로그램", Expresso das Ilhas, 2020년 5월 19일, <https://expressodasilhas.cv/cultura/2020/05/19/2a-edicao-do-programaenpalco100artistas-financiado-pela-uniao-europeia/69536>.

4.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는 UAE 예술인들의 미술품 구입을 통해 그들을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 외교 및 국제 협력부, 2020년 3월 30일, www.mofaic.gov.ae/en/mediahub/news/2020/3/30/30-03-2020-uae-artwork.

이번 시즌에 계획되었던 많은 예술 행사들의 취소에 이어, 우리는 우리 예술인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 이는 우리의 지역 예술에 대한 깊은 감사와 지원을 표하고 그들이 국가 정체성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인정하는 메시지이다.

자키 누세이베
국무 장관, 아랍에미리트

소득 손실의 보상

정책 설명

코로나19의 위기 동안 국가 정책의 상당수는 개인 창작자와 문화창의 기업, 비영리 단체와 공공 기관의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체 소득은 직업적 활동의 완전한 중단과 무관하다는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실업 보험과 동등하다. 사실, 창작자들과 문화 단체에 지급되는 임금 지원의 목적은 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다. 대체 소득은 따라서 보조금과 좀더 비슷해 보인다. 정책의 재정적 지원은 특별 예산 수당에서 오는데, 이는 사회 보조가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들이 내는 기여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되는 곳이다. 차후 전염병의 또 다른 대유행이나 불확실한 회복의 위험에 직면하여,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연장하고 예술적 노동이 소득의 주요 원천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창작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몇몇 국가에서는, 차후 지원금 지불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유지되거나 추가될 수 있는 예술인 및 문화계 종사자의 기본실태조사를 통해 이러한 유형의 소득에 지원 자격이 되는 이들을 식별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 이 정책들은 그들의 범위와 규모에 있어서 특수한 정책들인데, 이는 몇몇 국가들(캐나다, 남아프리카, 미국, 영국과 북아일랜드 등)에서 예술인들의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한 논쟁을 되살렸다.

왜 이 정책을 선택하는가?

-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재능과 경력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이다.
- 종종 재정적 문제와 결부되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예외 없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 필수 생계비 지출과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정책 실행을 위해 고려할 행동

- 이해와 운영이 간단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원은 주거, 음식 그리고 의료 등 기본 생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혜자들에게 신속하게 지불되어야 한다.
-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프로그램 관리 경험, 주로 상이한 단계의 정부들과 일한 경험, 중간자 없이 직접 지원 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야 내 단체들에 행정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 문화 분야 내의 취약한 직업 중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성이다. 기존 불평등의 심화를 피하기 위해서,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가장 취약한 그룹이 이러한 정책으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유의 사항

- 소득 손실의 보상은 실현 손실을 만회하는 데 충분해야 하며, 업무 재개 시 유급 노동 활동으로의 복귀를 유도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손이 더욱 부족해질 것이다.
- 제도를 복잡하게 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잠재적 수혜자들이 지원을 꺼리게 만드는 지원 기준을 피하도록 한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문화 기금(ACF)은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아프리카 예술 분야의 사회구조를 재건하기 위해 아프리카 예술인 및 문화 기구 연대 기금(SOFACO)을 출범했다. 이 기금은 예술인과 문화 기구들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1번 특별 코로나19 - #1/예술인(Lot 1 Spécial COVID-19 - #1/ARTISTES)’이라는 명칭의 모집 공고는 최대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미화 2000불 상당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손실되거나 지연된 급여 혹은 보수를 잠정적으로 지불하기 위해 예술가에게 부여되는 원조 혹은 지원금이다. 코로나19 맥락에서 적합한 창조 작업은 그 현실화 작업이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맥락에 적응하거나, 예술인이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예술적 창작 혹은 예술적 혁신을 의미한다.¹



불가리아

정부는 2019년 세금 신고액 기준, 월 수입이 1000 레바(미화 595불) 이하인 문화 분야의 모든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3개월 재정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² 지원 자격은 배우, 예술인, 무용가, 음악가, 작가, 그리고 문화계에서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다른 이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2개월의 긴급 조치와 1개월의 후속 지원 동안 최저 임금을 받은 사람들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문화부에 접수되었으며 이를 통해 1200여명에게 총 270만 레바(미화 160만불)가 주어졌다. 이 밖에도, 국가 문화 기관에 고용된 자들의 일자리가 6개월 동안 보장되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중소기업을 돕고 고용과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인구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는 코로나19를 위한 경제 및 재정적 활동 플랜을 채택하였다. 이 플랜은 사회 보장 기여금을 납부했지만 봉쇄 조치로 인해 그들의 직업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에게 5000만 유로(미화 5890만불)의 수당을 제공한다. 이 플랜은 또한 월 257 유로(미화 301불)를 일시불로 최대 3개월까지 제공한다. 이 제도는 문화창의 산업의 특수 형태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봉쇄 조치로 인해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예술인들의 창작 휴식 기간을 지불하기 위해 200만 유로(미화 230만불)가 예술인 사회 보장 프로그램³에 지급되었다. 문화부는 현재 이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필리핀

필리핀 문화예술국가위원회(NCCA)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강제된 의무 격리 기간의 영향을 받은 800명의 예술인과 문화 노동자들에게 5000 필리핀 페소(미화 103불)의 비과세 재정 지원금을 주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그 어떤 수혜도 받지 않는 예술인 및 자영업 형태의 문화계 종사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 다양한 문화 분야를 대표하는 NCCA의 국가 심의위원 19인의 이사회 회원들은 35인의 우선 수혜자를 선정하였다. 예술인들의 건강, 연령 혹은 질환으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명을 가진 필리핀 예술인 복지재단 기구 역시 그 네트워크 내에서 135인의 예술인을 선정하였다.⁴

1. “아프리카 예술인과 문화 기구들을 위한 연대 기금(SOFACO).”, 아프리카 문화 기금, 2020년 10월 2일 검색 참조, www.africanculturefund.net/wp-content/uploads/2020/05/FR-Lignesdirectrices_ACF_SOFACO_ARTISTES_22052020.pdf.

2. “코로나19: 불가리아가 문화 영역의 최저 소득자 지원 제도를 발표했다”, Sofia Globe, 2020년 4월 10일, <https://sofiaglobe.com/2020/04/10/covid-19-bulgaria-announces-support-scheme-for-lowest-earners-in-cultural-field/>

3. “리투아니아의 문화 및 창조 분야를 위한 코로나19 정책”, 리투아니아 공화국 문화부, 2020년 4월 10일, <https://lrkm.lrv.lt/en/news/covid-19-measures-for-culture-and-creative-sector-in-lithuania>.

4. 필리핀 예술인 복지재단, 2020년 10월 2일 접속, <https://artistswelfarefoundationphils.blogspot.com/>.

정책 설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일상을 순식간에 정지시켰다. 이 상황을 여러 실험을 시도하고,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 조건에 적합한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역량 개발은 예술인 개인뿐 아니라 하루 아침에 위기 관리 상황에 처한 회사의 경영자와 문화예술 협회들에게도 해당된다. 개발 지원금이나 무료 온라인 연수를 제공하면서, 정부는 예술인과 기업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예기치 못한 도전과 디지털 시대의 생산 및 소비 방식의 전환을 맞아 스스로를 새롭게 개발할 것을 격려했다. 예술 작품을 의뢰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장학금 형태의) 유급 연수 교육은 직업 활동의 전면적 중단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경력 근로자들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한다는 장점을 더 했다. 공중 보건 위기를 겪는 동안, 문화예술 분야는 대책을 찾는 것을 공통의 대의로 하는, 연대의 물결을 목도했다. 디지털 환경으로 향하는 소비 습관의 전환은 봉쇄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이러한 연대 활동은 장기적인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왜 이 정책을 선택하는가?

- 연수 교육, 연구 그리고 개발에 투자하면서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 전문 직업인들이 새로운 디지털 노동 방식과 새로운 소비 습관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이다.
- 전통적으로 관중 앞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예술적 창작의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기 위해서이다.
-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표현을 이끌면서, 역량과 지식의 상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이다.
- 창작자와 예술 분과 모두에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정책 실행을 위해 고려할 행동

- 창작, 생산, 배급, 소비 등 가치 사슬의 전체를 고려한다. 창작의 측면뿐 아니라 경영, 네트워킹, 협업, 파트너십 역량과 창작·생산·확산을 위한 디지털 역량을 지원한다.
- 창의적인 자유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면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자극하라. 격려하고 지지하라, 그러나 조건을 강요하지 말라.
- 지식을 나누는 것을 우선시하라. 얻어진 교훈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 문화 분야를 보다 더 회복탄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유의 사항

- 새로운 배움은 적절한 기한 내에 이뤄지지 못하면 확고해지지 못하고, 기존의 선례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 역량 개발 프로그램은 자금 조달과 일반 확산의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게 될 위험이 있다.
- 교육에 헌정된 모든 시간은 제대로 잘 소비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활동으로 복귀하는 것을 기다리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라. 또한 피드백과 단체 간 교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라.
- 그간의 수업을 통해 새로운 실험들이 유의미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피드백은 교육 콘텐츠를 조정하는 작업에 유용할 것이다.
- 지금은 배움과 능력 배양에 시간을 할애할 흔치 않은 기회이다. 그리고 이는 회복의 시기가 다가온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호주

호주 예술 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호주의 예술인과 예술 단체의 생계와 활동 그리고 기능을 돕기 위한 지원 전략의 일환으로 ‘창조적 연결(Creative Connections)’ 계획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문화와 예술 분야를 위한 웹 세미나 시리즈이다.¹ 이는 핵심 주제와 새로운 테마에 대해 산업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방식으로, 실제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 시리즈의 중심 테마는 ‘적응’에 맞춰져 있으며, 각 세션은 디지털 적응, 리더십에서의 적응, 그리고 예술적 활동의 적응을 다룬다. 매주 산업 전문가들, 예술인들 그리고 디지털 활동가들이 산업을 일깨우는 솔루션과 아이디어들에 대해 토론한다.²



칠레

노동 및 사회 보장부와 문화예술유산부는 칠레 국민들이 보조금의 도움을 받아 코세라(Coursera; 미국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를 통해 온라인 강의에 무료로 등록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였다.³ 공연 예술, 음악, 디자인, 시청각 분야의 교육과 일자리에 대한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약 3000개의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플랫폼은 세계의 선도적 대학 200여 개를 한 자리에 모아, 다방면의 양질의 교육을 칠레에서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이 정책은 전자 상거래와 디지털 마케팅뿐 아니라 저작권, 박물관 그리고 문화 기부에 대한 강의를 제공한다. 이 계획 하에서 만들어진 장학금은 자신의 역량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인도네시아

교육 문화부(Kementerian Pendidikan dan Kebudayaan)⁴ 의 문화국장은 디지털 캠페인 ‘#집에서 행복해요(# bahagiadirumah)’을 시작하였다.⁵ 이 계획의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 ‘나의 문화(Budaya Saya)’가 음악, 무용, 워크샵, 스토리텔링과 연극 공연 등을 다양한 오락물을 방송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예술인들은 또한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도록 초빙되었다. 이 플랫폼은 예술인들에게 많은 행사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하고 미래의 발전을 고려하여 예술적 협업을 장려할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3월 중순 국립 예술 위원회는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예술을 위한 역량 개발 제도(CDSA)를 발표하였다.⁶ CDSA는 예술 창작, 디지털화, 기업가 정신 그리고 관객 개발 등 다양한 영역을 가로지르는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이제까지 600여 회 이상의 연수의 기회가 제공되어 200개 이상의 예술 단체와 자영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았다. 예술인과 예술 단체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CDSA 보조금의 50퍼센트가 그들이 등록을 하는 대로 선지급되었다. 워크샵, 마스터클래스, 세미나, 강의, 직업적 프로그램과 레지던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의 프로그램들이 CDSA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또한 연수 교육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창조적 연결”, 호주 예술 위원회, 2020년 10월 2일 접속, www.australiacouncil.gov.au/programs-and-resources/creative-connections/.

2. “사각형 안에서 생각하기”, 호주 예술 위원회, 2020년 10월 2일 접속, www.australiacouncil.gov.au/programs-and-resources/thinkinside-the-squ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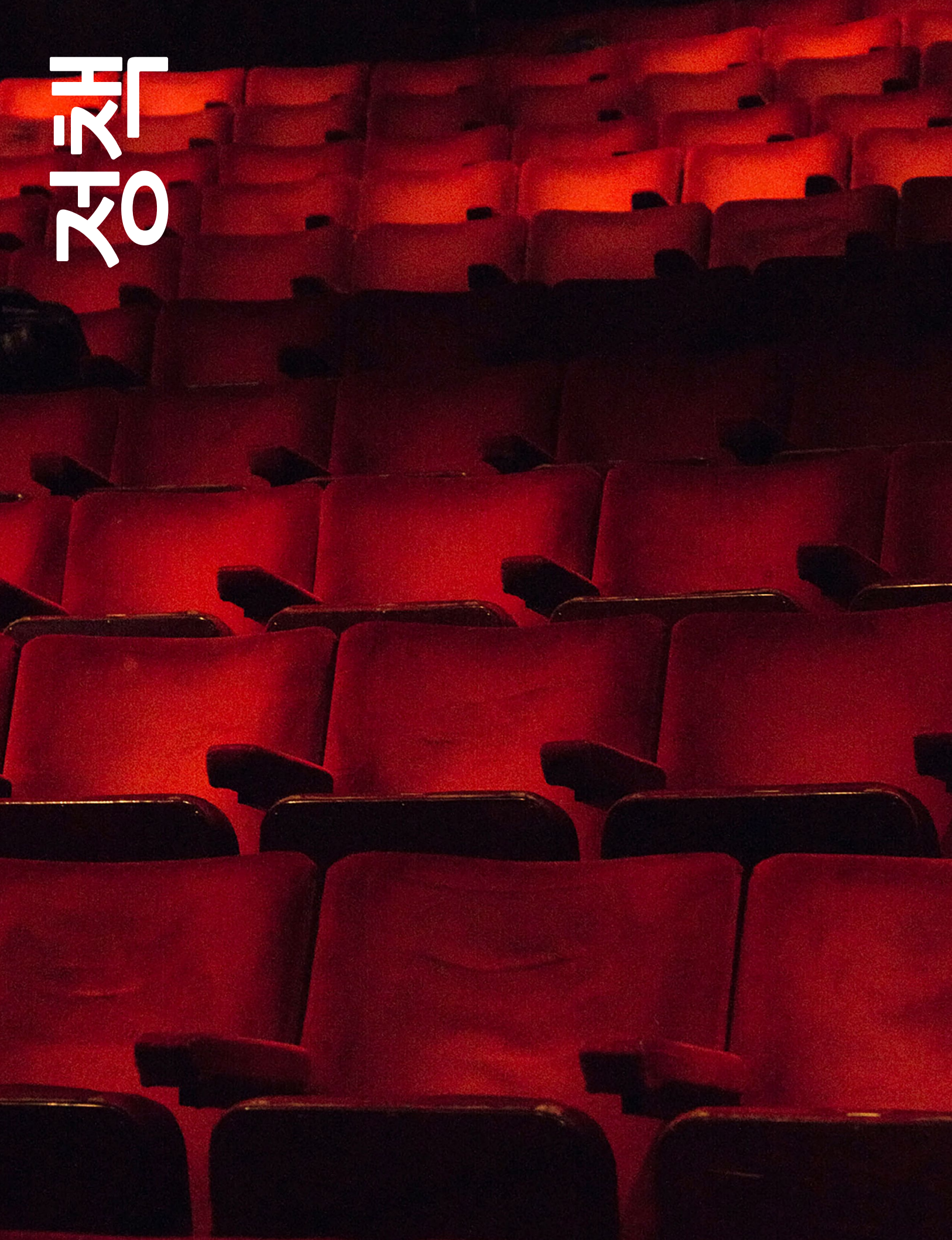
3. “노동부와 문화부가 공연 예술, 음악, 디자인 및 시청각 분야를 위한 3000개의 무료 교육 장학금을 지급한다(Ministerios del Trabajo y de las Culturas lanzan 3.000 becas gratuitas de capacitación para artes escénicas, música, diseño y audiovisual)”, 문화예술 유산부, 2020년 8월 31일, www.cultura.gob.cl/convocatorias/ministerios-del-trabajo-y-de-las-culturas-lanzan-3-000-becas-gratuitas-de-capacitacion-para-artes-escenicas-musica-disenio-y-audiovisual/.

4. 교육 문화부(Kementerian Pendidikan dan Kebudayaan), 2020년 10월 2일 접속, <https://www.kemdikbud.go.id/>.

5. 니 노만 와이라, “온라인 극장 공연은 세계적 유행병 속에 있는 예술인들이 목소리를 내게 해준다”, The Jakarta Post, 2020년 4월 8일, www.thejakartapost.com/life/2020/04/08/online-theater-performance-give-artists-a-voice-amid-pandemic.html

6. “코로나19 동안 예술을 지탱하기”, 싱가포르 국립 예술 위원회, 2020년 10월 5일 접속, www.nac.gov.sg/whatwedo/support/sustaining-the-arts-during-covid-19/Sustaining-the-arts-during-Covid-19.html.

정채





문화창의 산업 분야에 대한 원조

많은 국가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평상시에도 복합적인 이유로 국가 지원의 혜택을 받는 경제 분야이다. 이 지원은 접근성의 확대를 증진하고, 운영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국내 시장의 협소성을 보상하고, 공급을 활성화하고 위험 감수를 독려하기 위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진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는 갑작스러운 활동 및 수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종종 개입해 왔다. 그러한 정책들은 창작자들을 위한 정책들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이번에는 공공, 민간 그리고 비영리 단체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5 지원금과 수당의 조기 지급
- 6 의무 규정의 일시적 완화
- 7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보상
- 8 세금 및 사회 분담금 완화
- 9 수요 부양
- 10 대출 우대
- 11 기반 시설 및 설비 강화

지원금과 수당의 조기 지급

정책 설명

문화 단체들의 사업(페스티벌, 연극 제작, 무용, 음악, 국제 순회 공연 등)이 열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기에, 몇몇 지원 기관들은 이례적으로 사업비에 배정된 기금을 문화 단체의 운영비 지원으로 전용하였다. 사업 단계별로 지출된 경비의 증빙에 따라 지원금이 분할 지급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거의 전부에 가까운 지원금 대부분이 일시 지급되었다. 지원 기관들은 지급된 지원금이 고용 유지를 위해 이용되어야 하고, 노동자들에게 가야 한다고 하였지만, 이것이 늘 지켜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방식은 재정적 여유가 거의 없는 문화예술계, 그중에서도 특히 문학, 공연 예술 또는 시청각 분야 사업체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기간에 채택된 일부 예외 적용이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 이 정책을 선택하는가?

- 창작자들과 문화 단체들이 현금 유동성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이다.
- 문화 단체들이 고정 비용(임금, 임대료, 세금)을 계속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문화 단체들과 그들이 고용한 창작자들이 활동을 지속하고, 회복을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에 몰두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정책 실행을 위해 고려할 행동

- 선지급은 활동의 취소에 의해 야기된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이미 할당된 지원금의 집행을 단순히 앞당기는 것뿐이다.
- 많은 국가에서 중앙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였지만, 국제 협력과 국제 기금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대규모 관객을 동원하는 콘서트 현장과 기타 이벤트들이 그 국제적 성격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특히나 필수적이다.

유의 사항

- 수혜 단체들과 기업들이 기금을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강조하라(고용 유지, 임대료 지불 등). 기금은 부채 탕감이나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개발 계획이나
활동은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
문화가 정신에 이로운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바스마 엘-후세이니
문화 관리자 및 문화 거버넌스 전문가
리질리아트 예멘 (2020년 5월 18일)



브라질

브라질에서의 라이브 공연 및 이벤트가 취소되면서, 저작권 선지급 계획이 중앙 저작권 징수 및 배급 사무소(Escritório Central de Arrecadação e Distribuição- ECAD)와 국가 협력 협회들(Abramus, Amar, Assim, Sbacem, Sicam, Socinpro et UBC)에 의해 승인되었다.¹ 1400만 브라질 레알(미화 250만불)이 근 3년간(2017~2019년) 연평균 소득이 500 레알(미화 90불)에서 3만 6000 레알(미화 6490불) 사이인 2만 2천여명의 브라질 작곡가, 음악가, 가수들에게 선지급되었다. 평균 연소득이 지난 3년간 1만 2000 레알(미화 2162불) 이하인 저작권자들은 3회 분할로 600 레알(미화 108불)의 선지급을 받을 것이다.



캐나다

캐나다 예술 위원회는 사전 기금에 6000만 캐나다 달러(미화 4480만불)를 지불했는데, 이는 기본 보조금을 받는 1100여 개 단체에 주어지는 연간 지원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이다.² 위원회가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선급금은 단체들이 그들이 고용한 예술인과 문화 노동자들에 지불금 미납 등을 포함한 그들의 즉각적인 의무를 지키기 위한 기본 보조금을 받게 한다. 이 정책은 공공 행사의 취소와 예술 프로그램의 강제 중단의 여파에 시달리는 문화예술계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퀘벡 예술 문학 위원회(CALQ)와 문화 기업 발전 협회(SODEC)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다.

1. "브라질의 ECAD가 공연 저작권료를 선지급한다", IQ 매거진, 2020년 4월 15일, www.iq-mag.net/2020/04/brazil-ecad-advances-performance-royal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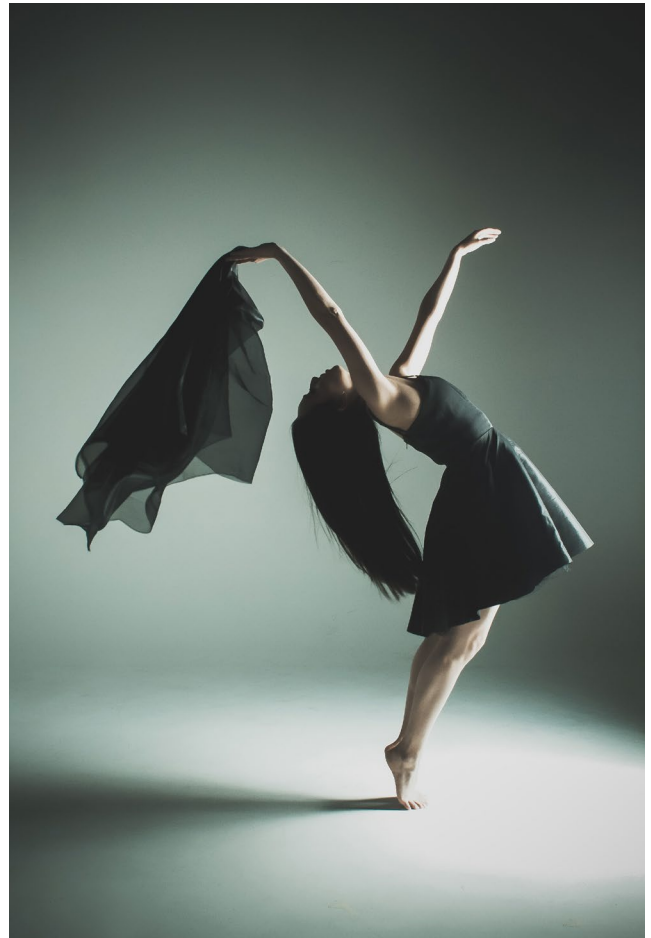
2. "코로나19 위기 사태에 직면한 예술 분야의 중심을 지키기 위한 6000불의 선자금 집행", 캐나다 예술 위원회, 2020년 3월 30일, <https://conseildesarts.ca/medias/2020/03/financement-anticipe>.



세네갈

세네갈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협회(SODAV)는 세네갈의 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2060만 3932 프랑세파(미화 20만불)의 기금을 설립했다.³ 이 지원은 문학과 연극 저작권료의 2019년 지불분과 지난 3개월간 수령한 평균 지급금의 30퍼센트로 계산된 2020년분의 선지급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원의 제한성을 고려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지원 자격자의 최대 소득은 50만 프랑세파(미화 800불)로 책정되었다. 이와 동일한 연대적 논리에서, 계산 후 소득이 없거나 3만 프랑세파(미화 48불) 이하인 모든 사람들은 사회 기금으로부터 3만 프랑세파(미화 48불)를 수령할 것이다.

3. "Sodav는 문화계를 위한 1억 2060만 3932 프랑세파의 기금을 공표했다," Dakaractu, 2020년 5월 8일, www.dakaractu.com/Coronavirus-La-Sodav-annonce-unfonds-de-120-603-932-F-Cfa-pour-le-monde-de-la-culture_a187863.html.



© Jose Garcia / Unsplash

의무 규정의 일시적 완화

정책 설명

문화 기업들은 대개 공공 정책의 목표와 부합하기 위해 의무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방송사의 주요 역할은 민간의 운영자가 자국 콘텐츠를 조금만 방영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인데, 이 자국 콘텐츠들은 해외 콘텐츠를 구입 또는 제작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방송사들은 도서 산간 지역을 포함한 전체 인구를 위한 서비스를 할 의무를 가지는데, 이는 방송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요컨대 이러한 규제적 의무들은 상당한 규모의 운영비를 지출하게 한다. 위기의 시대에, 정부들은 급감하는 광고 수입으로 인해 의무 규정을 준수하는 데 민간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몇몇 정부들은 그들에게 세금 환불 또는 사회 보장 기여금 납부 면제 등과 같은 일시적인 지원을 주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왜 이 정책을 선택하는가?

- 의무 규정을 수정하는 것은 공중 보건 위기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적응하면서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 세금 부과와 같은 규제는 전적으로 정부가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이는 법 집행 사안이다. 시간이 부족할 때에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보다 법령에 따른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

정책 실행을 위해 고려할 행동

- 의무 규정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한다.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해당 단체의 재정적 생존력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제의 수혜자인 제3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 중장기적 효과들을 고려한다. 문화계에서의 창작과 제작 주기는 전체적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규제 완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사업은 더욱 지체될 수도 있다. 제작 분야가 너무 오랫동안 중단된다면, 회사의 폐업과 인재 유출로 일부 역량과 전문성은 사라질 것이다.
- 의무 규정은 종종 대중에게 설명하기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주요 언론의 관심을 덜 받게 된다. 이 주제는 전문가들을 위한 것 중 하나이다. 대중이 왜 해당 정책이 현 상황에서 정당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의 사항

- 규제 부담의 완화는 시장의 규칙을 조작하지 않기 위해, 차별 없이 모든 대상 단체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이러한 방식의 자문은 독립적이고 튼튼한 규제 기구를 가진 국가들에서 흔히 이루어진다.
- 일단 규제 완화가 적용되면,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누가 언제 위기가 끝났다고 결정할 것인가? 면세 혜택을 받은 회사들은 그들의 재정 건전성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광고 시장이 다시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할 수도 있다.
- 이러한 조치가, 별도로 문화창의 산업의 진작과 고용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명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콜롬비아

정보통신부(Ministerio de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y las Comunicaciones - MinTic)는 무료 국립 공중파 채널들을 위해 자국 콘텐츠 쿼터제를 완화했다. 국가 위기 상황의 기간에 한해 자국 콘텐츠의 의무방영비율이 월~금 황금시간대는 70%에서 20%로, 주말과 휴일 황금시간대는 50%에서 20%로 감소 조정되었다.¹ 이 규정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하에서 신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어려워져 채널별 의무를 다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기술부가 발표한 이 조치는 또한 국가의 문화와 정체성에 본질적이라 간주되는 지역 방송국에도 적용된다.



프랑스

정부가 공포한 봉쇄 조치에 따라, 영화관은 문을 닫아야만 했다.² 국립 영화 센터(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CNC)는 극장 개봉 후 다른 매체 출시에는 시차를 두어야 한다는 규제에 예외를 두고 영화를 바로 온라인으로 출시하는 것을 허가했다. 극장 상영 후 준수해야 하는 홀드백 기간(보통 4개월)의 축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2020년 3월 14일 이후 개봉 예정인 영화들을 위해 CNC는 주문형 비디오 스트리밍(on-demand video streaming) 출시를 허가했다. 이들 영화는 이를 위해 영화관의 재개관까지 대기하거나, 제작자나 배급사에 영화 상영을 조건으로 한 보조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

2. “국립영화센터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병 동안의 영화 개봉의 예외적 방식에 대해 영화계의 자문을 얻을 것이다”, 국립영화센터, 2020년 3월 20일, www.cnc.fr/professionnels/communiqués-de-presse/le-cnc-consultera-la-filière-cinema-sur-les-modalités-exceptionnelles-de-sortie-des-films-pendant-epidémie-covid19_1140861.



© Scheier / Unsplash

1. “정보통신부(MinTic)가 국가 봉쇄 기간 동안 개방형 TV와 공영 TV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수립하였다”, 정보통신부, 2020년 4월 4일, <https://mintic.gov.co/portal/inicio/Sala-dePrensa/Noticias/126488:MinTicestablece-nuevas-medidas-para-la-television-abierta-y-para-garantizar-latelevision-publica-en-la-cuarentena-nacional>.

문화를 응당의 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한 방법은 문화와 이윤에 반대하는 것을 그만두고 문화의 경제적 기여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마렘 말롱
 법학자, 아프리카 현대미술 갤러리 큐레이터
 리질리아트 아프리카 (2020년 7월 28일)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보상

정책 설명

많은 정부들이 갑작스런 활동 중단으로 야기된 손실과 회복에 관련된 비용을 보상했다. 이미 지불된 환불 가능 지원금에 대한 어떤 상환 청구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활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정된 지원금의 총액이 지불될 것이다. 소극장 공연이 보다 비용 효율적이라도 하기 위한 지원금도 주어졌다. 예를 들어 영화 분야에서는, 영화가 영화관에 잠깐만 걸리거나 아예 개봉되지 못하면 영화 마케팅 비용은 고스란히 손실된다. 영화 촬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촬영 재개를 위해 방역 수칙에 따른 추가적 비용이 필요하다. 라이브 공연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받은 또 다른 영역이다. 몇몇 페스티벌들은 온라인에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축제가 여름 시즌 취소와 관광객 입국 금지로 인한 비용을 손실로 처리해야 했다. 그들은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지리라 희망하며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이 정책을 선택하는가?

- 수입 감소로 인해, 단체들은 현금 흐름의 부족과 파산 위험에 직면했다. 비영리 단체들은 그 비영리성으로 인해 보다 큰 위험에 처해 있다.
- 예술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체계가 사라지면 가치 사슬 전체가 악화된다. 영화와 공연 예술에 있어서, 공간의 전면 폐쇄는 관객이 자국 작품에 접근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그들 소득의 주요 원천이 사라질 수 있고, 특히 도심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 오직 국가만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상환 의무 면제 보조금을 지원할 재정적 역량이 있다. 이러한 개입이 없다면 공공 투자와 의욕적인 문화 정책으로 수년간에 걸쳐 조성된 생태계는 붕괴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정책 실행을 위해 고려할 행동

- 대출과 보조금은 구별되어야 한다. 대출은 회복을 준비하는 투자이다. 보조금은 복구 불가능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긴급 지원이다.
- 자격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초래한 실제 손실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이 정책은 이미 적자 상태에 있는 조직이나 기업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 세금 내역서나 기존 계약 증명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몇몇 보상의 방식은 문화 분야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많은 국가에서 문화 분야가 특수 형태의 근로와 비공식적 노동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유의 사항

- 이 정책은 전적으로 예외적인 것이므로, 상황의 회복이 완결된 후에도 이것이 유지될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라.
- 모든 문화 기업과 직업이 이러한 종류의 정책을 통해 구제될 수 있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네덜란드

교육 문화 과학부, 경제 사업부, 그리고 소비자 및 시장 관할 당국의 후원으로 여러 문화 단체들이 개발한 '티켓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즐기세요 (Save your ticket, enjoy it later)' 매표 제도가 2020년 4월 시작되었다.¹ 이 계획을 통해, 네덜란드 극장, 콘서트 홀, 음악 공연장, 이벤트와 스포츠 주관사, 박물관과 축제들은 공동으로, 관객들에게 문화 분야를 후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떤 행사가 이후 날짜로 연기되지 못하거나 티켓 구매자가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구매자는 바우처를 받거나, 표를 기부하거나 혹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중 바우처 제도는 봉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실시된 것이다.



스웨덴

2020년 4월 22일 유럽 연합은 문화 행사의 취소 혹은 연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 손실 혹은 추가 비용을 기업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4억 2000만 크로나(미화 4670만불)의 원조 지원을 스웨덴에 승인하였다.² 기금은 스웨덴 예술 위원회(Kulturradet)³와 스웨덴 영화 인스티튜트에 의해 편성되었다.⁴ 지원금은 수혜자당 1000만 스웨덴 크로나(미화 1100만불)의 한도로 결정되었고 2020년 3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계획들을 지원한다. 이에 더하여 스웨덴 정부는 위기로 인해 초래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문화 분야의 재건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10억 5000만 스웨덴 크로나(미화 1억 6700만불)를 추가 투입하였다. 이 금액 중에 8000만 스웨덴 크로나(미화 890만불)는 활동 재개를 앞당기기 위한 공연 배급자들에게 보건 방역 수칙 적용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다.

1. "티켓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즐기세요", 2020년 10월 16일 접속, www.saveyourticket.nl/.

2. 국고 보조: 위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로 취소 혹은 연기된 문화 행사들로 초래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3800만 유로를 스웨덴 운영 계획에 승인했다, 유럽 연합 위원회, 2020년 4월 22일,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723.

3. 스웨덴 예술 위원회, 2020년 10월 5일 접속, www.kulturradet.se/en/.

4. "스웨덴 영화 협회(Svenska Filminstitutet)", 위키피디아, 2020년 10월 5일 접속, https://sv.wikipedia.org/wiki/Svenska_Filminstitutet



우루과이

2020년 3월 26일, 몬테비데오 시 문화과는 문화 영역을 위한 1000만 페소(미화 45만 1830불)의 지원 기금 조성을 발표했다.⁵ 이는 자영업 형태의 예술인들에게 미친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문화 지원 계획을 위한 것으로 시의 예술 협회와 문화 분야 자영 근로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행되었다. 이 계획은 7개의 분야를 다루며, 활동 중단이나 시의 문화 부서와의 계약 변경으로 영향을 받은 예술인과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5. "문화 활동 지지 후원 계획(Plan de apoyo a la actividad cultural)", 몬테비데오 사무국, 2020년 3월 26일, <https://montevideo.gub.uy/noticias/cultura/plan-de-apoyo-a-la-actividad-cultural>.

문화 분야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 3800만 유로의 스웨덴 제도는
문화 행사를 적극적으로 주최해 온 비즈니스가
현재의 위기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준다.

마그렛 베스타저
유럽 연합 의회 수석 부총재

세금 및 사회 분담금 완화

정책 설명

몇몇 정부들은 향후 몇 개월 간의 세금 납부 유예를 공고하였다. 그들은 또한 문화 협회와 기업이 활동이 없는 기간 동안의 사회 기여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아예 면제해 주었다. 이러한 비용 지불의 탕감 혹은 유예는 운영자들이 현금 흐름을 보존하고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정책들은 국가가 더 많은 비용을 들여 해결해야 하는 채무 불이행, 혹은 파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왜 이 정책을 선택하는가?

- 임박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대출 능력이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는 문화예술 분야를 돕기 위해 국가의 대출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무 기여금과 사회 분담금의 유예는 문화 기업 및 협회 경영자들이 가장 긴급한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 주는 한시적인 정책이다.

정책 실행을 위해 고려할 행동

- 과세의 공정성은 공공 정책의 기본 원칙이다. 모든 예외는 전적으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고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문화창의 산업의 취약성은 위기의 시기에 그들에게 허락된 예외적 제도가 정당함을 설명할 수 있다.
-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실행을 위한 시간 계획표를 수립하고 이를 지켜라.

유의 사항

- 이 정책은 전적으로 예외적인 것이므로,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도 이것이 유지될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라.

예술인들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예술인을 둘러싼 기반 환경을 지켜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인들과 기술자들에게도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이 길을 잃으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진다.

요하네스 퇴러
라디오 베를린 선임 프로듀서, 월드 뮤직 차트 유럽 사무총장
리질리아트 남아시아 (2020년 6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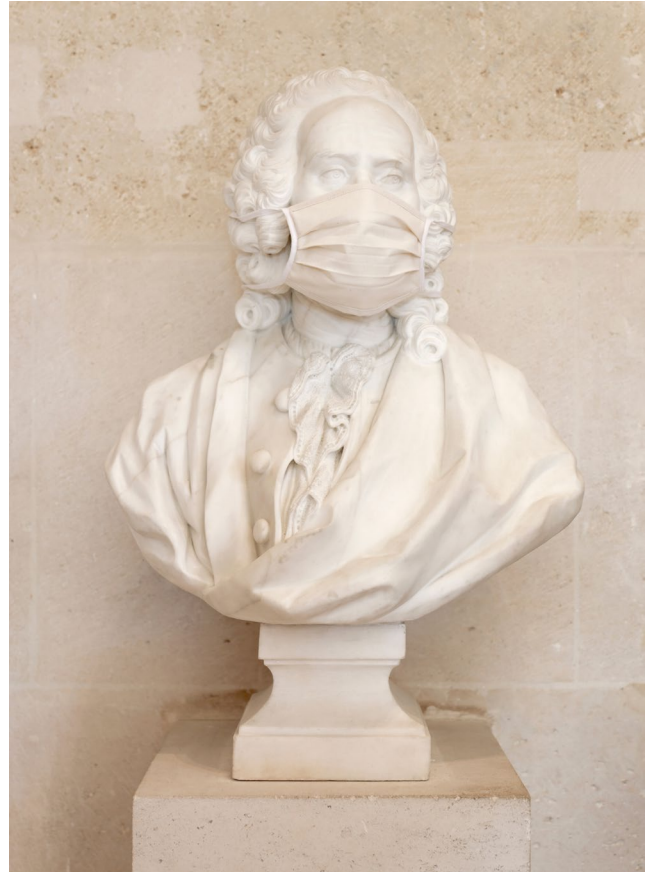
프랑스

2020년 5월 24일, 문화 분야를 포함하여 봉쇄로 인해 특별히 타격을 입은 분야들을 위한 30억 유로 (미화 35억불)의 사회 분담금 면제 정책이 발표되었다.¹ 공중 보건 위기로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 명령에 따라 사업에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직원 250명 이하)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다. 이들은 2020년 3월에서 6월까지 이미 지불하거나 연기된 고용주 사회 분담금 중 2020년 2월부터 5월 고용 기간과 관련한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예술인과 작가들은 사회 분담 기여금에 대해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일회성의 가변적인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체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가져온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 상쇄용 세금 종합 정책이 2020년 7월 1일 발효되었다.² 이 종합 정책은 또한 박물관과 문화 행사 입장료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VAT)율을 15%에서 10%로 내리는 감세안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정책은 개인과 법인이 위기 상황으로 인한 세금 공제를 사후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도입한다. 따라서, 2020년 결손 신고를 통해 최근 2년 세금 년도의 과세 표준을 차감할 수 있다.



© Jean-Philippe Delberghe / Unsplash

**우리 예술인 단체의 몇몇이 함께
[캄보디아] 정부에게 세금 경감, 장기 대출,
기존 대출의 상환 유예와 대출 이자 할인 등을
요청하는 공동 성명문을 작성하였다. [...]
경제 재정부는 그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묻는 답장을 보내 왔다.**

아른 손-폰드
음악가
리질리아트 국제 음악 위원회
(2020년 5월 28일)

1. “식당, 관광, 이벤트, 체육, 문화 분야를 위한 지원 정책”, 재정경제부, 2020년 6월 11일, www.economie.gouv.fr/covid19-soutienentreprises/mesures-soutien-secteurs-restauration-tourisme-culture-sport#.

2. 체코 정부가 숙박업, 문화, 리프트업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할인을 승인했다”, 프랑스-체코 상공회의소, 2020년 5월 26일, www.chambre.cz/actualites/n/news/le-gouvernement-tcheque-a-approuve-une-reduction-de-la-tva-surlebergement-la-culture-et-les-remo.html.

수요 부양

정책 설명

수요의 붕괴는 문화 기업, 협회와 기관들의 생존력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티켓 판매, 후원, 광고에서 오는 수입은 급감하거나 예고없이 사라졌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촉발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사람들은 생필품의 비축과 구입을 중시하고 우선 순위가 낮거나 가외의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 지출을 급격히 억제했다.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예술 교육 과정을 제공하거나 입장료를 대폭 할인하는 등의 유인책이 취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자국의 문화 콘텐츠를 홍보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문화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문화 공간에 방역 수칙과 거리 두기의 제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문화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왜 이 정책을 선택하는가?

- 수요 부양은 회복을 위한 투자이다. 이를 통해 국가는 문화예술이야말로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 시민들은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지만, 생계에 필수적이지 않은 상품과 용역에 있어서는 가격에 민감한데, 문화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 국가의 개입은 마케팅 전략이나 홍보 캠페인보다 훨씬 멀리 보고 가는 구조적 정책이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국가는 문화예술을 우대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인데, 그 자원은 제한적이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거대 온라인 다국적 기업들의 지배력과 그들의 플랫폼에 배포되는 콘텐츠의 인기에 맞서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

정책 실행을 위해 고려할 행동

- 문화 소비의 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됨과 함께, 물리적 상품과 가상 상품에 동등한 조항을 적용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에서 문화 상품들이 대부분 독점적인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판매된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일방을 우대하여 다른 측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라.
- 대중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공중 방역 조치를 실행하는 문화창의 기업들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 통상적으로, 문화 정책은 수요진작책보다는 공급지원책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러한 정책은 보통 문화담당부처보다는 다른 부처의 관할에 해당된다. 위기의 시대에, 정부는 합심하여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촉진한다.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선별적인 정책(세금 감면 및 기타 감세 조치, 교육훈련 등)과 비교해서, 부처 간 협력은 직접적으로 수요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유의 사항

- 이 조치들은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구조적 투자이므로, 이것들이 즉각적인 혜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라.
- 수요 진작을 위해 티켓 판매나 도서 등 문화 상품 구입 가격에 부가가치세율을 다양화하는 식의 조치를 피하라. 할인 가격이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도입되면, 이 새로운 가격이 기준점이 되어 버린다.
- 공중 보건 위기가 끝나면 문화 분야 역시 자동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창작을 재개하고 대중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들이 많을 것이다. 국가의 약속은 실질적이면서 지속적이어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학교에서의 창작 장려를 위해 400만 뉴질랜드 달러(미화 260만불)를 추가로 투자하였다.¹ 이 예산은 2020-2023년간 이미 책정된 예산인 711만 뉴질랜드 달러(미화 420만불)에 추가되는 것으로, 영화와 게임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300명의 예술인을 고용하여, 그들의 재능과 지식을 나눠 학교와 협력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창의 (Creatives in Schools)' 프로그램에 사업비에서, 개별 창작 프로젝트당 1만 뉴질랜드 달러(미화 5621불)로 최대 3명의 예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자금이 확보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문화유산부(Te Manatu Taonga), 크리에이티브 뉴질랜드와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영국 및 북아일랜드

공공 재정과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영국 재무부는 디지털 출판에 부과되던 20퍼센트의 부가가치세의 폐지를 발표하였다.² 예정보다 7개월 앞당긴, 2020년 5월 1일 발효된 이 조치는 전자책과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출판 업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치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기간에 전자책과 디지털 미디어 구독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서둘러 마련되었다. 또한 인쇄 매체가 코로나19 정보 제공 캠페인의 일환으로 정부로부터 3500만 파운드(미화 4460만불)에 이르는 추가 광고 수입을 받는다는 것도 발표되었다.



우크라이나

2020년 9월 15일 의회는 문화 및 관광 산업 분야의 부가가치세를 7%로 인하하는 긴급 법안을 통과시켰다.³ 이러한 세법 개정은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재화 및 용역 제공에 드는 생산과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공연, 콘서트, 영화 그리고 전시에 대한 제작자와 관객 양측의 접근성을 보다 향상시킬 것이다.

3. "우크라이나 의회가 최초로 문화창의 산업 대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Ukraine Open for Business, 2020년 9월 17일, <https://open4business.com.ua/ukrainian-parliament-passes-at-first-reading-bill-reducing-vat-to-7-for-representatives-of-culturecreative-industries/>.

1. "학교에서의 예술을 위한 기금 부양책", 뉴질랜드 예술 위원회, 2020년 6월 15일, www.creativenz.govt.nz/news/funding-boost-for-arts-in-schools.
2. "전자 출판에서 폐지된 부가세", 영국 연합 정부, 2020년 4월 30일, www.gov.uk/government/news/vat-scrapped-on-e-publications.

우리(예술인들)는
양질의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싶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지불하고 티켓을 구매함으로써
우리를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창작자와 소비자 양측 모두가
이러한 상호 신뢰를 가져야 한다.

미야비

음악가, 유엔 난민 친선 대사를 위한 고등 위원회
리질리아트 일본 (2020년 7월 2일)

대출 우대

정책 설명

문화창의 기업들은 고용, 상품과 서비스 생산, 수출 등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이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민간 부문의 다른 사업과 유사하나,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바로 고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다. 회사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그 가치가 합리적으로 추정되어 은행권이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 지적 재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그럼에도 대출에는 위험 부담이 있고 대출 이자율은 더 높을 수 있다. 그들의 심각한 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과 대출 보증 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무이자 대출이나 1차 상환금의 유예 등 우대 조건이 부여될 수 있다.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출자에게 이자를 탕감해 주는 형태의 추가적 지원도 시행될 수 있다.

왜 이 정책을 선택하는가?

- 이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기업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1순위로 채택되어야 하는 조치이다.
- 보조금과 비교해 볼 때, 대출은 사업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는 운영자에게 보다 많은 책임감을 부여한다.
- 무이자 대출은 문제에 대처하는 것뿐 아니라 사업 개발이나 창업 등에도 도움이 된다.

정책 실행을 위해 고려할 행동

- 일반적으로 대출은 기업의 사업 계획을 평가하고 자문할 수 있는 전문성과 계약 조건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은행에 의해 운영된다.
- 민간 분야의 대출에 대한 정부 보장은 은행과 문화 기업 간 접촉을 용이하게 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촉진할 수 있다.
- 은행 종사자 대상 교육 훈련으로 이들이 문화창의 산업의 특수성에 익숙해지도록 할 수 있다.

유의 사항

- 대출 승인에 선행하는 사업 계획 평가는 문화창의 산업이 다른 분야보다 높은 위험 부담을 가진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 더 높은 지급준비금을 제공하여 기업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여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라.
- 문화 기업들은 창의성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모두에 맞는 원사이즈'는 없다. 그들의 규모, 성장률, 피고용인의 수, 고객, 생산율과 현금 흐름은 폭넓게 다양하다.
-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통한 외화 확보나 대출 상환 이자율 등 특정 대출 자격 기준은 사실상 많은 기업들을 배제하게 된다.



튀니지

문화 사업부는 문화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공공 보건 위기가 초래한 경제적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문화 회생 기금(FRC)을 마련하였다.¹ 공공-민간 혼합 기부로 이루어진 이 기금 하에서 가능한 제도들 중에는 사업의 지속성과 문화 생활의 생기를 복돋아 주기 위한 ‘무이자 대출’이 있다. 이 지원은 예술인, 창작자, 그리고 문화 분야의 활동가(월 고정 급여를 받는 공공 분야 피고용인 및 민간 영역 피고용인은 제외)들을 위한 것이며, 이들은 FRC에 헌정된 플랫폼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유럽 연합

유럽 위원회와 유럽 투자 기금(FEI)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시기의 문화창의 기업들의 재정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출범하였다.² 이 정책은 2억 5100만 유로(미화 2억 9250만불)의 예산으로 문화창의 분야 보증 제도의 일환으로 실행된 것으로, 중소기업과 소규모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들 덕분에, 금융 중개 기관은 이들 법인에 보다 유연한 조건을 적용할 수 있고 FEI는 작금의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급 보증과 종속 상환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 Jonathan Singer / Unsplash

소액 금융은 다양한 금융 상품의 개발을 통해, 저소득층이나 혹은 비정기적 소득자들에게 도움을 주어 왔다. 소액 금융은 이러한 차원에서 예술인들을 도울 수 있다. 은행가는 예술가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가의 재정 수준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사벨라 안투네스
국제 협력 저축은행 재단 카메론 대표부 소장
리질리아트 중앙 아프리카 (2020년 6월 19일)

1. 문화 회생 기금(Fonds Relance Culture), 2020년 10월 5일 접속, <http://relance.culture.gov.tn/>.

2. “코로나 바이러스 : 유럽 위원회와 유럽 투자 기금이 2억 5100만 유로의 문화 및 창조 분야 보증 시설과 함께 새로운 코로나19 사업 조치들을 발표했다”, 유럽 투자 기금, 2020년 7월 29일, www.eif.org/what_we_do/guarantees/news/2020/europeancommission-eif-announce-new-covid19-measures-under-cultural-creativesector-guarantee-facility.htm.

기반 시설 및 설비 강화

정책 설명

예술, 문화, 그리고 미디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들은 일반적으로 3가지 유형, 즉 프로젝트 지원, 단체 지원, 그리고 기반 시설 개발에 대한 지출을 집행한다. 후자는 민간 영역의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문화창의 기업, 임의 단체나 기관들은 대출 한도나 자원에 한계가 있다. 문화 기반 시설은 소장품의 창작, 보존, 배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코로나19 위기가 라이브 공연이나 박물관·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활동을 전면 중단시킨 상황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반 시설과 설비들을 첨단 기술에 적응시키려는 투자에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야외 극장에서의 콘서트나 공항에서의 영화 상영과 같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합한 공공 공간의 활용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왜 이 정책을 선택하는가?

- 문화예술이 전국 어디서나 실재하고 가시적인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 정부는 저조하거나 없다시피 한 민간 투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금력을 발휘한다.
- 디지털 전환에 발맞추기 위해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서이다.
- 이 정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료와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진작한다. 보건 규칙을 준수하고 디지털에 적응함으로써, 이상적인 조건에서 경기 회복에 대비한다.

정책 실행을 위해 고려할 행동

- 기반 시설에의 투자는 문화예술계에 직접적인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이는 건설업, 자재 및 장비 공급자와 기술 용역 공급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즉, 경제 전반에 유익하다.
- 이는 창작자나 문화 단체들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 역량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에 반해 컴퓨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경영 방식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자금 지원은 이들 단체가 보다 효율적이고, 회복탄력적이 될 수 있게 기여할 것이다.

유의 사항

-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유사시에도 이 조치는 창작, 프로그래밍, 그리고 배급의 필요 이외의 다른 목적에 이끌리면 안 된다. 기자재는 창작자와 그 작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기반 시설 투자는 예술 작품과 문화 단체들을 지원하는 기금과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건물과 장비에 소요된 노력은 대중을 불러 모으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과 소장품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하곤 한다. 건물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상당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방법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독일

2020년 6월, 정부는 10억 유로(미화 11억불)의 예산이 책정된 '문화의 새로운 출발(NEUSTART KULTUR)'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이는 독일의 문화 분야를 되살리고, 문화 기관의 재개관을 지원하고자 한다. 재건 계획 중 거의 2억 5000만 유로(미화 2억 9600만불)가 새로운 방역 기준을 문화 기관과 설치물에 적용하는 작업에 배정되었다. 정규 활동이 공공 기금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문화 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의 새로운 출발' 프로그램은 위생 조치의 엄격한 실행, 온라인 매표 시스템 개선, 그리고 환기 시스템의 현대화에 자금을 낸다.



일본

2020년 4월 20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실시하며, 문화예술분야 종합 긴급 지원책의 일환으로, 문화청²에 추가 예산을 배정하였다. 추가 패키지 예산은 총 21억 엔(미화 2010만불)으로, 방문자 시간별 예매 제도 등의 감염 방지 조치와 박물관, 극장 그리고 음악홀과 같은 문화 기반 시설에 적외선 카메라, 에어컨, 공기 정화기 및 알코올 소독제의 비치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14억 엔(미화 1400만불)의 예산이 디지털 콘텐츠 장비를 현대화하고, 공연이나 전시의 고해상도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배정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2001년 이래, 연례 사업 공고의 방식으로 문화 기반 시설 지원 사업(Apoyo a la Infraestructura Cultural de los Estados)을 시행해 왔다.³ 2020년도에, 멕시코 문화 분야의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위 사업은 신속하게 집행되었고,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대출이 제공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지역이나 문화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문화 활동 전용 건물을 건축하는 등, 기존의 문화 기반 시설을 보존하고 기금을 통해 문화 프로젝트들을 강화하고자 한다. 할당된 경제적 자원은 문화의 집, 문화 센터, 연수 및 제작 센터, 도서관, 박물관, 역사 아카이브, 극장 등 문화예술 전용 공간들을 재활성화하고, 건축하고, 장비를 갖추고, 예술 활동으로 채우는 작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3. "국가 문화 인프라 지원(PAICE)", 멕시코 정부, 2020년 10월 5일 접속, <https://vinculacion.cultura.gob.mx/PAICE/>.

1. "문화의 새로운 출발(NEUSTART KULTUR) 프로그램을 위한 10억 유로," 독일 연방 정부, 2020년 6월 17일, www.bundesregierung.de/breg-en/issues/neustart-kultur-1761588.

2.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긴급 종합 지원 패키지", 일본 문화청, 2020년 10월 5일 접속, www.bunka.go.jp/english/pr/fy2020/index.html.

예술인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그들의 예술을 실천하고, 창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정 당국과 협력하여 일해야 한다. 문화 안팎에서 문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예술인들은 건의안을 만들 수 있으며 해결책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아부세피안 라그라

무용가, 안무가

리질리아트 알제리 (2020년 5월 16일)

정책





문화창의 산업의 경쟁력 강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문화창의 산업의 변혁에 박차를 가했는데, 이 분야는 이미 시장의 세계화와 가장 강력한 중개자가 소유한 디지털 플랫폼의 가치 독점의 결과로 압박을 받고 있었다. 비즈니스 모델을 적응해 나가고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것은 인터넷 거대기업들의 커져만 가는 지배력에 대응하는 동시에 현재의 코로나19 위기와 이로 인한 소비 행태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이 되었다. 디지털 기술은 문화 상품과 특히 전 세계에 걸친 서비스의 유통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면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도전과 위기를 동시에 안겨 주고 있다.

- 12 참여 기반 수요 평가와 타당성 조사
- 13 비즈니스 모델의 조정
- 14 자국 콘텐츠 진흥
- 15 외국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

참여 기반 수요 평가와 타당성 조사

정책 설명

많은 정부들이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의 영향을 평가하고, 어떤 정책을 실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수렴해 왔다. 일부는 지나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긴급한 요구에 재빨리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다. 전문 협회들은 그들의 주장을 보강하기 위해 회원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창의 산업에 미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조사가 아프리카의 대학과 연구 센터에서 진행되었다.¹ 국가 단위의 통계뿐 아니라, 유네스코, OECD, 그리고 유럽 평의회와 같은 정부 간 기구들이 문화예술 분야의 피해 규모 추산에 동참했고,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의 대다수는 창작자와 운영자들이 일단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제 관심은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복구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옮겨 가고 있다.

왜 이 정책을 선택하는가?

- 수요 평가와 타당성 조사는 국가별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에 적합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은 그들의 승인과 성공적인 집행을 도와준다.
- 지원 정책의 조건과 기준은 어떤 사례가 가장 일반적이고 어떤 것들이 예외적인지 고려하는 사실의 관찰에 기반한다. 이는 반드시 의사 결정 과정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또 알맞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하기에, 결산 보고에도 유용할 것이다.

정책 실행을 위해 고려할 행동

- 비판에 대응하고, 계산 장부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회계 감사에 제출하기 위해 의사 결정 과정을 문서화한다.
-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 각기 다른 입장, 분야, 그리고 전문성을 검토하여 다양한 수요와 상황을 고려하고, 이견의 수용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릴 위험을 방지한다.
- 가능한 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견 수렴의 목적에 대해 폭넓게 소통한다.

유의 사항

- 의견 수렴은 참여에 기반을 두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나, 이것이 결코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 위기 상황에서, 정책의 집행 여부가 종합적인 정보의 유무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이 향후 보완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금의 상당수를 지원의 1단계에 집행하고, 1차 지원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 잔액을 2 단계에 남겨둘 수 있다.

1. "경제적 영향 연구의 비교 분석", artsmanagement.net, 2020년 8월 27일, www.artsmanagement.net/Articles/Covid-19-and-culture-in-Africa-A-comparative-analysis-of-economic-impact-studies,4184.



부르키나파소

2020년 4월, 문화관광 분야 지원을 위하여 12억 5000만 프랑세파(미화 184만불)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한 문화예술관광부의 결정에 이어, 현장 직접 평가와 확인을 통해, 지원 사례별로 필요 사항, 선입견, 적합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¹ 위원회는 장관의 기술 고문이 주재하고, 민간과 공공 영역의 두 그룹으로 구성된다. 차후 이들은 장관의 검토와 승인을 위한 개괄 서류를 작성하였다.



페루

국가 위기 상황에서, 문화부는 리마 시청과 협력하여 위기 상황의 문화 분야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설문 조사를 설계·실시했다.² 조사 결과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실제적 관찰에 근거한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공개되었다.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시민 사회 대표들과 60회가 넘는 회의를 열어, 코로나19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수렴했다. 정부는 문화 분야 개인 및 단체를 위한 긴급 원조와 콘텐츠 구입을 위해 약 5000만 솔(미화 1천3백9십만불)을 집행하였다.



영국 및 북아일랜드

문화부 장관은 ‘문화의 회복과 쇄신(Culture Recovery and Renewal)’을 위한 위원장(Commissioner)을 임명하였다.³ 그는 독립적인 전문가로 활동하고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에 권고 사항을 제출할 것이다.⁴ 정부는 또한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부장관이 지휘하는 문화 쇄신 대책 본부(Culture Renewal Taskforce⁵)와 8개 분과별 작업반을 설치하였다. 일례로 엔터테인먼트와 이벤트 작업반은 문화 공간을 다시 열고 직원과 관객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전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런던 극장 협회(SOLT), 영국 극장, 그리고 영국 예술 위원회(ACE)와 같은 국립 문화 단체들과 일하면서, 연극·음악·무용·영화의 재개에 주력한다.

3.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복구하고자 하는 분야를 돕기 위한 새 문화 위원장 임명과 대책 본부 설치”, 영국 및 북아일랜드 정부, 2020년 5월 20일, www.gov.uk/government/news/new-culture-commissioner-named-and-taskforce-set-up-to-aid-sectorrecovery-from-coronavirus.

4.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영국 및 북아일랜드 정부, 2020년 10월 5일, 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digital-culture-media-sport.

5. “문화 쇄신 대책 본부와 분야별 작업반”, 영국 예술 위원회, 2020년 10월 5일 접속, www.artscouncil.org.uk/covid-19/cultural-renewal-taskforce-and-sector-working-groups#.

1. “코로나19 : 성찰 중에 있는 문화 관광 주체를 위한 지원 계획”, 부르키나파소 문화예술관광부, 2020년 4월 6일, www.culture.gov.bf/accueil/details?tx_news_pi1%5Baction%5D=detail&tx_news_pi1%5Bcontroller%5D=News&tx_news_pi1%5Bnews%5D=61&cHash=c5c569e23c27b3e476c285bdd71fd95b.

2. “코로나19가 예술, 박물관, 문화창의 산업 부문에 미치는 비상 사태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 - 일반적 결과”, 문화부, 2020년 6월 5일, www.gob.pe/institucion/cultura/informes-publicaciones/633376-informe-sobre-el-impacto-del-estado-deemergencia-por-el-covid-19-en-el-sector-de-las-artes-museos-e-industriasculturales-y-creativas-resultados-generales.

디지털 채널은 새로운 형태의 상호 작용을 제공한다. 현재, 새로운 문화적 행태가 형성되고 있다. 지금은 창작자와 사용자들 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이다. 이는 시민 사회 내의 연대를 강화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마이클 워머
작가

리질리아트 오스트리아 (2020년 4월 24일)

비즈니스 모델의 조정

정책 설명

물리적 거리 두기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고 주요 인터넷 기업의 지배적인 위치를 더욱 강화했다. 소비 습관 역시 급속히 변화하였다. 문화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세계화는 위협인 동시에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이다. 디지털 환경은 새로운 시장의 개발에 유리하다. 영화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었던 영화제는 기존 지역 시장 밖의 관객의 두드러진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이 중 몇몇은 지금의 존재감과 새로운 관객과의 관계를 다지기 위해서, 행사 종료 후에도 주문형(on demand) 상영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이다. 살아남기 위해, 문화창의 기업들은 적응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특히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과 합작 투자를 우대하는 조건을 시행하려는 입장에 있다.

왜 이 정책을 선택하는가?

- 예전의 방식으로의 회귀는 없을 것이다. 환경에 대한 우려는 원격 근무, 가상 협력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단체가 작동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 시민들은 디지털 환경에 의해 가능해진 새로운 문화적 표현들을 발견하고 즐기며 가까이했다. 전자책, 오디오북, 음악·영화의 스트리밍과 음악 및 연극 공연의 원격 다운로드 등은 대중 문화의 새로운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 실행을 위해 고려할 행동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단순히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옮겨 놓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콘텐츠는 인터넷 알고리즘의 논리를 따라 기획되고 홍보되어야 한다.
- 비즈니스 모델의 조정을 위한 지원책들은 관객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그들의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온라인 거대기업들과 경쟁하는 자국 문화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와 지식 공유는 장려되어야 한다.

유의 사항

- 지나치게 관행에 의존하거나, 실험의 방식에 대하여 너무 많은 제한을 부과하거나, 해결책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않는다.
- 연극이나 무용처럼, 딱 들어맞지 않는 예술활동의 적응을 '강요'하지 않는다. 새로운 혼종적 예술 형태가 생겨날 수 있으나 이것이 라이브의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
- 창작과 제작의 디지털화에만 집중하고, 유통과 홍보에 대한 전문성의 개발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거대 문화 기업들은 이 배급과 홍보 분야에 뛰어난 경우가 많다. 디지털로의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2020년 5월, 국립 예술 위원회(NAC)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예술 프로젝트 공모를 시작하였다.¹ 개인 및 등록 예술 단체들은 코로나19의 보건 지침을 준수하되, 코로나 시대의 창작, 전시, 발표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디지털 프로젝트를 제안하도록 안내받았다. 국립 예술 위원회(NAC)는 지원자들이 예술과 관객과의 상호 작용을 새롭게 상상할 것과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시대의 예술 관람과 예술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할 것을 장려했다. 10만에서 50만 남아프리카 란드(미화 6044불 - 30만 219불)를 받기 위해, 지원자는 사업제안서를 통해 그들이 활동할 지역 사회를 위한 영향과 가치를 입증하고, 경제적 가치, 창의적 가치, 사회적 가치, 치유적 가치 혹은 교육적 가치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것을 설명해야 한다.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시청 문화 사무국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청 문화부는 2020년 4월, 그들의 디지털 정보와 유통 플랫폼을 통합하기로 합의했다.² 이는 가장 첨단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두 나라의 다채로운 문화예술적 표현물을 보다 많은 관객에게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협정 덕분에 멕시코의 플랫폼인 ‘우리 집에 있는 문화 수도(Capital Cultural en Nuestra Casa)’와 아르헨티나의 플랫폼인 ‘집 안의 문화(Cultura en Casa)’는 두 도시의 문화 생활의 일부를 구성하는 폭넓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합 도시·지자체 기구(UCLG)의 회원이기도 한 라틴 아메리카의 두 지자체는 라틴 아메리카 아(亞)대륙의 가장 긴급한 필요 사항을 이해했다. 시민들이 문화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 분투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집에 머무르며 적절 거리를 유지하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뉴질랜드

국립 예술 개발 사무소 ‘크리에이티브 뉴질랜드’³가 설치한 적응 기금은 ‘토이 우루 카히카테아(Toi Uru Kahikatea)’나 ‘토이 토타라 하데마타(Toi Totara Haemata)’ 투자 프로그램 내 단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예술 활동의 전환 혹은 의미 있는 개발을 지원한다. 이 기금은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작업 방식을 독려하고, 새롭게 디지털의 영향을 받은 조직 모델을 돕기 위한 것이다. 기금의 목적은 디지털 교육 사업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의 모델들을 재고하는 시각에서 직무역량 개발과 연구 개발을 후원하는 것이다.



스위스

스위스 연방으로부터 전액 자금 지원을 받는 스위스 공공 문화 재단 ‘프로 헬베티아’⁴는 ‘가까운 거리(Close Distance)’ 공모 사업을 출범했다. 이는 문화 실행자와 기관들이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 대처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제공하며 새로운 예술 포맷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에 맞서, 이 계획은 특히 전통적인 제작과 배급 제도와 관련하여, 문화 주체들이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건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관행적인 제도를 재점검하고 문화 분야의 이동성 개념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1. “국립 예술 위원회(NAC)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예술 프로젝트 신청 공고를 발표했다”, 국립 예술 위원회, 2020년 10월 18일 접속, www.nac.org.za/call-for-applications-for-funding-2020-arts-projects/.

2. “멕시코시티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는 문화예술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합하는 데 합의하였다(Las ciudades de México y Buenos Aires acuerdan unir sus plataformas digitales de arte y cultura)”,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2020년 4월 17일, www.buenosaires.gob.ar/cultura/noticias/las-ciudades-de-mexico-y-buenosaires-acuerdan-unir-sus-plataformas-digitales-de.

3. “적응 기금 2020”, 뉴질랜드 예술 위원회, 2020년 10월 5일 접속, www.creativenz.govt.nz/find-funding/funds/adaptationfund-2020.

4. “코로나19: 큰 성공을 거둔 지원 공고”, 프로 헬베티아, 2020년 10월 5일 접속, <https://prohelvetia.ch/fr/press-release/erfolgreiche-covid-19-ausschreibung/>.

정책 설명

많은 정책들이 디지털 수단을 이용하여 봉쇄 조치로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감으로써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러한 정책들의 명칭은 의미심장하다 : 우리 집의 문화 수도(Cultural Capital en Nuestra Casa, 멕시코), 무대 위의 예술인 100명(EnPalco100Artistas, 카보베르데), #너희 집 안의 문화(#laculturaentucasa, 스페인), 따로 또 같이(Contigo en la distancia, 멕시코), #우리집에 문화를(#culturecheznous, 프랑스). 이 정책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접근 가능해진 풍부한 문화 유산을 조명하고, 주문과 보수 지급을 통해 실현된 새로운 창작물이나 예술 작품을 소개한다. 이 중 일부는, 국가 공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가 이들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정책은 유급 노동을 예술인에게 제공하는 것,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봉쇄 동안 갈 곳을 잃은 관중들에게 새로운 시청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것,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콘텐츠 주변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 해외 콘텐츠와 대등하게 자국 문화를 홍보하는 것, 그리고 구독 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 등의 여러 가지 목표를 한번에 충족한다.

왜 이 정책을 선택하는가?

- 해외의 유료 플랫폼에서는 없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 국내의 예술인과 대중 간의 직접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이다.
-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동안 대규모 관객 대상의 새로운 공공 정보 서비스의 출범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 작품의 디지털 플랫폼 스트리밍에 대해 온당한 소득을 얻기 위해 애쓰는 예술인들에게 공정한 보수를 제공한다.
- 아직 이와 같은 문화 참여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국의 문화를 접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수립한다.

정책 실행을 위해 고려할 행동

- 민간 및 해외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밀리지 않을 콘텐츠의 매력에 집중한다. 콘텐츠를 제대로 선별하고, 기술적으로 손색이 없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 가장 단순한 형태의 서비스는 실시간 스트리밍과 흡사할 수 있다. 보다 세련된 서비스는 검색 알고리즘과 맞춤형 검색 인터페이스를 갖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
- 프리뷰, 시사회, 실시간 공연 등 눈에 띄는 이벤트 기획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제작과 프로그램 전략이 있어야 한다.

유의 사항

- 서비스의 퀄리티가 민간 영역과 필적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실행을 맡기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 그 누구도 언제 위기가 종료될지 모르고, 질과 양적 측면 모두에서, 듣고 보조를 맞추는 습관 형성이 필요하므로, 단기 사업계획을 피하라.
- 가장 인기있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제공하고 싶다면, 서로 다른 연령대 그룹(특히 젊은 층)을 목표로 하면서 나이에 맞는 적절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독창적인 해결책을 우선시하라.



이집트

문화부는 이벤트 생중계 및 녹화 방송을 위한 유튜브 페이지를 개설했다. ‘집에 계세요, 문화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어요 (Stay At Home, Culture is Between Your Hands)’¹ 라고 명명된 이 계획은 영화, 연극, 뮤지컬 혹은 무용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관중이 각자 집에서 문화에 접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 전 세계의 문화 애호가들이 이 문화부 유튜브 페이지 콘텐츠를 총 12만 6000 시간 동안 시청하였고, 세계 25여 개국에서의 1150만 건의 방문 수를 기록했다. 문화 최고 위원회는 또한 ‘우리와 함께 읽어요 (Read with Us)’ 계획을 선보였다. 이는 작가와 시인들이 소설, 단편 또는 시 등 그들 작품을 발췌하여 10분간 카메라 앞에서 읽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게시되었다.²



체코

관중 및 팬들과의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 축제의 대표와 라이브 공연 기획자들은 비상업적 라디오 방송국인 ‘연합 라이브 라디오(United Live Radio)’를 만들었다.³ 2020년 4월 10일부터 이 방송국은 세계의 주요 예술인들의 콘서트를 방송하는 한편, 주로 체코 예술인들을 홍보하였다. 이 주된 목적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역 예술인과 관객에게 미친 영향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 Marcela Laskoski / Unsplash

흥미로운 것은 [코로나19가]

배급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보다 분산된 공급에 접근할 필요를 정말로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우리는 콘텐츠의 유형과 스트리밍 플랫폼 양쪽에서 공급의 폭발을 목도했다.

그리고 이는 틈새 콘텐츠가 관객을 만나는 것을 순식간에 용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독립 콘텐츠에게는 환상적인 기회이다. 배급에 있어서 향후 과제는 검색용이성(discoverability)이다.

장-크리스토프 J. 라몽탄뉴

영화 배급자

리질리아트 - 영화 및 시청각 예술(LOJIQ)
(2020년 6월 7일)

1. “이집트 문화부,” 유튜브, 2020년 10월 5일 접속, www.youtube.com/channel/UC8McPibRT36QSjnt4eGucNw.

2. 무스타파 마리, “코로나19 세계적 유행병 속에서의 이집트 문화부의 e-계획들이 변창하고 있다”, *이집트 투데이*, 2020년 4월 12일, www.egypttoday.com/Article/4/84599/Egypt%E2%80%99s-Min-of-Culture%E2%80%99s-initiatives-thrive-amid-Covid-19.

3. “체코의 라이브 공연 산업이 연합 라이브 라디오 채널에 합류한다”, *IQ 매거진*, 2020년 4월 14일, <https://iq-mag.net/2020/04/czech-live-industry-joins-forces-forunited-live-radio/#.X2i7qy3pPVo>.

정책 설명

세제 혜택은 도서, 엔터테인먼트, 음악 그리고 시청각 산업에 유익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많은 국가들은 해외 영화와 텔레비전 제작 촬영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 제도를 도입했다. 서비스 제작은 기술자와 장비 대여 회사들의 활동의 주된 부분을 차지한다. 해외 제작의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 협회들은 보건 지침을 적용하고, 담당 당국의 승인을 받게 하였다. 몇몇 정부들은 해외 제작 로케이션을 고를 때 거론되는 우선 순위 국가들로 자리잡기 위해 그들의 세제 혜택을 보다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왜 이 정책을 선택하는가?

- 세제 혜택 정책은 효율적인 것으로 입증되어, 이 제도는 더 많은 국가들에 확산되고 있다.
- 해외 프로덕션은 일자리의 중요한 원천이며, 역량을 개발하고, 활동이 활발한 제작사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 로케이션 장소로 선택된 곳은 특히 관광의 측면에서 제작 성공의 부가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정책 실행을 위해 고려할 행동

- 세제 혜택 정책은 재무부가 관장하는 사안이다. 비용 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es)이 독립적인 경제 분석자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 이 재정 정책은 직접 고용 보조금과 동등한데, 다른 경제 분야에서 이익을 제기할 수도 있다.
- 세제 혜택은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양질의 노동력, 최신 기술, 적합한 촬영 로케이션 혹은 사회 기반 시설, 적절한 규정, 촬영 허가에의 용이성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유의 사항

- 세제 혜택은 해외 촬영과 국내 제작에 동등한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둘은 촬영이 재개되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두고 경쟁해야 할 것이다.
- 우대 조치는 운영하기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며, 해당 분야의 선두 국가들과 비교할 때 유리하여야 한다.
- 세제 혜택, 기술 장비 등을 들어 촬영 장소로 국가를 홍보하기 위한 구조를 수립해야 한다. 마치 방문 판매와도 같이 철저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호주

2020년 7월, 정부는 영화 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무대 뒤의 지원 업무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호주를 영화 로케이션 장소로 선택하는 제작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4억 호주 달러(미화 2억 8500만불)를 투입했다.¹ 대규모 영화 프로젝트에 세금 환급을 제공하던 기존의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이 새로운 우대 조치는 2026년까지 연장되었고 호주에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10개의 주요 영화 프로젝트에 1억 2300만 호주 달러(미화 8700만불)가 이미 배정되었는데, 이는 거의 10억 호주 달러(미화 7억 1000만불)의 수익을 낼 것이며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1. “영화 산업 인센티브 2020,” 호주 세무국, 2020년 10월 5일 접속, www.ato.gov.au/Forms/Film-industry-incentives-2020/.



스페인

스페인에서의 영화 제작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 단체들은 영화 제작자들의 관세와 세율을 낮추기 위한 국가 및 지역 전략을 도입했다.² 비용이 100만 유로(미화 116만불) 또는 그 이상인 경우, 해외 시청각 작품들의 제작자들은 스페인에서 발생된 비용에 대해 20퍼센트의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카나리아 제도와 나바르 같은 몇몇 스페인 지역에서는 이 환급률이 40퍼센트까지도 가능하다. 이 정책의 목표는 지역 사람들에게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해외 제작자들이 스페인에서 영화를 만들도록 우대하는 것이다.

2. “스페인에서의 세금 우대”, 문화체육부, 스페인, 2020년 10월 5일 접속, www.culturaydeporte.gob.es/cultura/areas/cine/industria-cine/coproduccion-espaincentivos-fiscales.html.



© Chandler-media / Unsplash

로케이션 인센티브는 경제적 승수이다.
이는 호주 영화 제작의 생존력을 지속하고
고용과 지역 사업을 도울 것이다.

폴 플레처
커뮤니케이션, 사이버 안전, 예술부 장관
호주

일반적 권고

이 실용 지침서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그것이 초래한 위기 동안 문화창의 산업을 돕기 위해 모든 대륙에 걸쳐 여러 국가에서 채택된 수많은 정책들의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했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선택된 요약 자료표를 동반한 짧은 양식이 각국이 들인 노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실용 지침서가 수많은 국가의 예술인, 창작자, 문화 단체와 기업과 기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은 주저없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 책자를 끝까지 읽을 관심있는 독자들을 위해, 4가지 권고 사항을 제공하고자 한다.

1 가장 효율적인 정책들은 최고의 발상과 현장에서 체득한 실질적인 필요를 짚은 것이다. 이러한 이론과 실제의 조합은 최적의 성공률을 지닌 정책을 만들어 낸다. 위기의 시대에는 행동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정책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원치 않는 부작용을 제한하면서 기대된 결과들을 내야 한다. 유네스코가 주창해 온, 특히 2005년 문화적 표현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에서¹ 강조한 참여적 거버넌스는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칙이다. 앞의 지면들은 참여적 거버넌스의 생생한 사례들을 담고 있는데, 이는 민간 기업, 사회 경제적 활동가들과 학계를 포함하는 광의의 시민 사회 단체를 망라할 뿐 아니라 정부 간 협의를 아우르는 것이다.

2 유네스코의 활동이 기본으로 삼은 두 번째 근본적인 원칙은 양성 평등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심한 타격을 입고 위험에 처한 분야인 문화예술계에서 특히나 여성의 비율이 높음에도, 이 실용 지침서를 준비한 사전 조사에서 특별히 양성 평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어떠한 정부 정책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한 지원이 몇 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주로 시각 예술 분야의 민간 재단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소득을 잃거나 건강 문제를 얻어 일을 할 수 없게 된 여성 예술인들을 위한 간헐적인 긴급 지원의 형태를 취한다. 우리는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없이 동등한 혜택을 주리라고 상정하고, 희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코로나19 위기 기간에 취해진 조치에서 여성 예술인과 문화 종사자들이 공정하게 수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 정책에 대한 감사와 검증 항목에 여성 예술인과 문화 종사자들에 대한 영향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제11조 - 시민 사회의 참여. 당사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시민 사회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식한다. 당사국은 본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시민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문화를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협상 테이블에
한 자리를 내 주어야 한다.

오마르 아비아자르, 연극 감독

리질리아트 레바논 (2020년 9월 10일)

3 공공 보건의 위기 이전에도, 창의 분야에서의 국가 간 이동성은 이민에 대한 제약과 불안한 분위기로 인해 심각하게 구속되었다. 주된 장애물 중의 하나는 비자 신청과 발급 과정에 관한 것인데, 이는 종종 노동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비용 자체가 너무 높아서 신청을 단념하게 하기도 한다. 공공 기금이나 후원 없이는 많은 예술인들이 해외 창작 레지던시 참여를 위해 떠나거나 순회 공연을 할 수단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보건 방역 규칙이 완화되고 점진적으로 국제 여행이 재개될 때, 국가들은 예술가 지위와 관련한 유네스코의 1980년 권고 사항을 채택하며 한 약속,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술인의 자유로운 국제 이동을 홍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단계를 취하고 그들이 선택한 국가에서 그들의 예술을 할 예술인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 예술인들의 이동성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공공 보건의 위기가 의심의 여지없이 라이브 공연(연극, 무용, 음악, 서커스)의 이동성과 순회를 지원하는 사업의 재검토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위기가 일깨운 두 가지, 즉 이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가상의 방식의 이동성을 만들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역량을 고려해서이다.

4 네 번째 권고 사항은 문화 정책과 프로그램을 디지털 시대에 적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유네스코는 문화 활동의 급진적인 전환의 도래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저해되고, 그 원래의 영토에서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회원국 모두에게 알리고 이에 대비하게 하고자 노력했다.

2017년에 열린 2005년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실행에 대한 운영 지침을 채택한 것은, 어찌 보면 현재의 위기 상황을 미리 준비한 셈이 되었다. 당사국들은 기반 시설과 비용 문제로 디지털 플랫폼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나라들에서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진흥하고 적절한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술 발전이 새로운 기회와 도전들을 계속하여 만들어낼 것임을 인식하였다. 여전히 망설이고 있던 정부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디지털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있을 것이고, 물리적 거리 두기의 시대에 인구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매개체이다. 이제 이 새로운 현실은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강력한 인터넷 기업들은 그들의 장악력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창작자들은 정상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위기 중에 얻어진 경험은 많은 교훈을 줄 것이다.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 보호라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식의 나눔을 희망해야 한다.

문화적 노동은 자유롭고 공평한
환경에서 최고의 결과를 낸다. 이러한 환경을
보장하려고 한다면, 예술과 문화 실천자,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뿐 아니라 예술인들 간의 관계도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 틀을 가져야 한다. 공평하게 자유를 촉진하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

키마니 뇨구

언어학자, 창조 경제 워킹 그룹 의장

리질리아트 아프리카 (2020년 7월 28일)

2021년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유네스코) 발행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 유네스코 2021
ISBN - 978-92-3-000129-2



이 간행물은 원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IGO(CC-BY-SA 3.0 IGO) 라이선스의 오픈 액세스에서 참고가 가능합니다(<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igo/>). 이 출판물의 콘텐츠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유네스코 오픈 액세스 아카이브 사용 약관(www.unesco.org/openaccess/terms-use-ccbysa-en)에 동의합니다.

원제 : *La culture en crise :
Guide pratique pour un secteur
créatif résilient.*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발행, 2020년

유네스코 측에서는 국가, 영토, 도시, 지역의 권리에 관한 법률적 위치, 국경 및 경계의 결정 등을 포함하여 이 책에서 사용된 명칭이나 자료의 설명 등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습니다.

이 간행물에 표기된 사실과 그에 관한 의견은 작가의 주관적 견해이며 유네스코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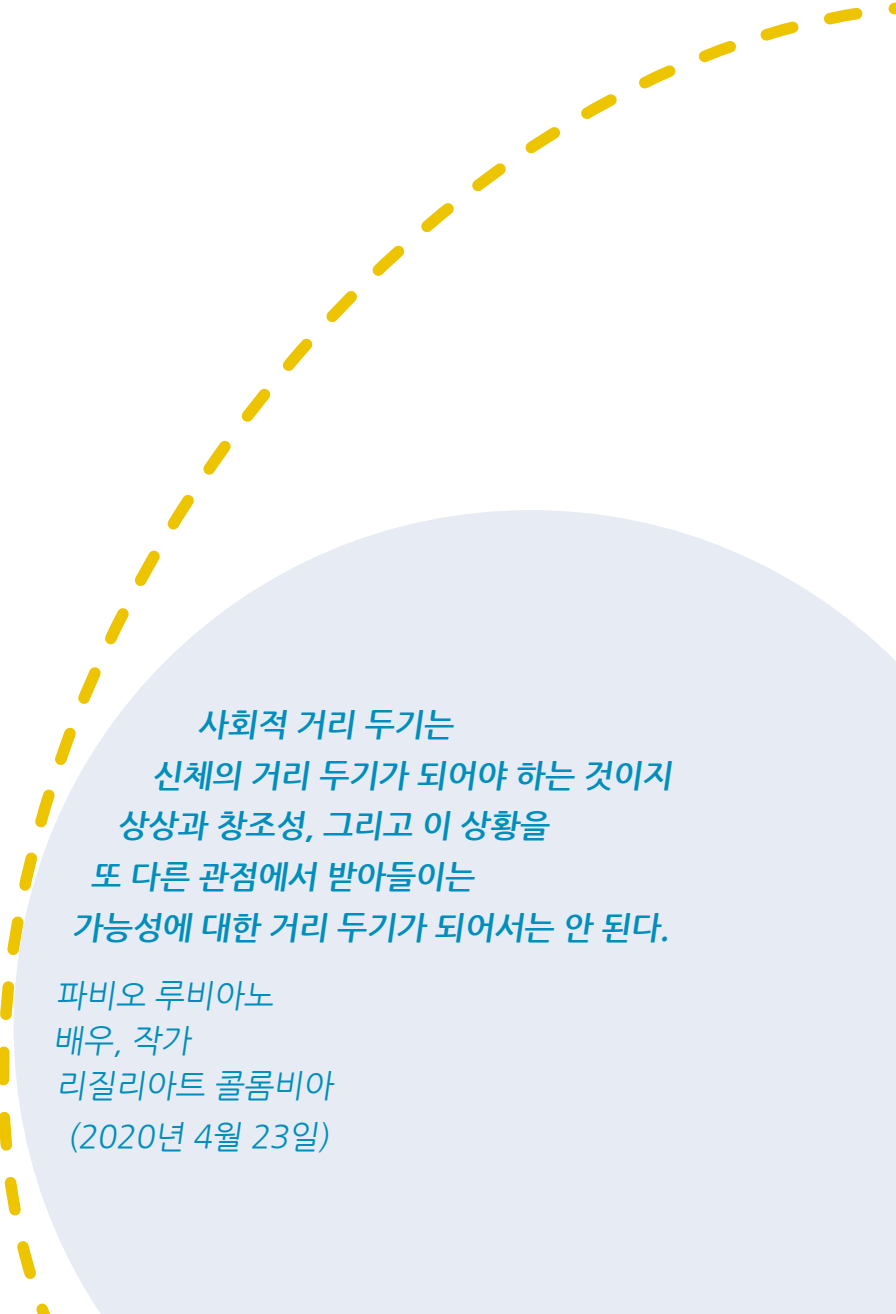
이 간행물에서 발표 처리된 이미지들은 상기한 원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 하에 있지 않으므로 저작권 소지자의 사전 허락없이 사용되거나 복제될 수 없습니다.

번역 :
박지은 Jieun Park

표지 사진 :
© 빅토리아 빌라사나 & 리카르도 라 발레*
© Victoria Villasana et Riccardo La Valle*

그래픽 및 표지 디자인 :
코린 헤이워스 Corinne Hayworth

레이아웃 :
장 니콜라 르샤 Jean-Nicolas Lechat



사회적 거리 두기는
신체의 거리 두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상상과 창조성, 그리고 이 상황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가능성에 대한 거리 두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파비오 루비아노
배우, 작가
리질리아트 콜롬비아
(2020년 4월 23일)

위기에 직면한 문화

문화창의 분야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정책 지침서

코로나19가 초래한 세계적 유행병은 문화창의의 산업 분야에 이미 존재하던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증폭시키며 해당 산업을 황폐하게 하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실용 지침서는 위기 상황 중에 채택된 정책과 조치들을 검토하면서, 효과적이고 유익한 것으로 간주된 긴급 조치들을 소개하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경향을 평가하고, 새로운 결함들과 기존의 결함들을 가려내고, 정책 결정자들이 문화창의의 산업을 경제 및 사회 재건 계획 속에 배치하는 것을 돕기 위한 실제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위기에 직면한 문화는 가장 긴박한 현안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화창의의 산업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표준'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구조적인 변화들을 어떻게 유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http://en.unesco.org/creativity/>



국제연합 · 문화적
교육과학문화기구 · 표현의 다양성



9 789230 001292